



남북강선

5

주체108(2019)
루계 제357호 월간



우리의 국기

승엄하고 금지높게 (♩ = 78)

작사 리혜정
작곡 김강남

mp C Fm/A^b C F D₇ G G₇

1. 우 - 리 의 - 람 흥 색 기 발 창 공 높 이 날 릴 - 제 바 라

C C₉/G F G₇ C *mf* G₇

보 며 - 늘 뛰는 심 - 장 애 국 의 피 로 끊 어 라 거 -

C G₇ A_m F G₇ C A₇

세 찬 펄 력 임 - 에 조 국 의 숨 결 어 리 고 목 숨
(후렴)

D_m G₇ E_m A_m D D₇/F[#] G D₇/A G₇/B *f*

처 럼 소 중 한 기 폭 - 에 인 민 의 운 명 실 었 네 사

C C_{aug}/E F D_m D₇/F[#] G D₇/F[#] G₇

랑 하 리 라 빛 - 나 는 - 우 리 의 국 기 를 나

C₇ F B₇/F[#] C/G G G₇ C

북 겨 다 오 - 이 세 상 다 할 때 까 지

2. 한없는 긍지가 끊어 가슴펴고 노래하네
국기는 우리의 영광 영원한 우리 미래
이 땅의 넋과 기상이 살아숨쉬는 기폭에
찬란히 새겨진 그 별은 승리로 빛발치여라
(후렴)

3. 우리가 지켜온 기발 대를 이어 지켜지리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우리 국기 불멸하리
영광찬 공화국의 역사를 길이 전하며
눈부신 람홍색 그 빛은 누리를 뒤덮으리라
(후렴)



승벽심

지난해 전세계근로자들의 명절인 5.1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평양기초식품공장 여성종업원들의 바줄당기기경기가 불만 하였다.

생산에서도 체육경기에서도 언제나 앞서려는 여성종업원들의 승벽심이 얼굴마다에 차넘치였다.

본사기자 김강무

차례

- 조국의 품이 있어 -

좌담회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품 3

일 화

따뜻한 틀속에서 5

민족교육의 화원은 만발할것입니다 7

변할없이 따르렵니다 8

매혹과 전정 9

민족적공지를 안고사는 동료들 10

애국의 자취는 영원히 남아있다 14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잊을수 없는 사람들 16

열정과 헌신을 다해가시는분 18

주체사상은 애국애족의 사상 19

석탄증산으로 들끓는다 20

축전지생산이 늘어나고있다 22

5.1절의 근로자들 24

친근한 길동무로 30년 26

부인병치료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는 의료일군들 . . . 28

말린꽃에도 향기가 있다 30

명화폭속에서 보낸 시간 32



20



39

조국의 품에 안겨

《조국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라》 36

고향소식

정이 드는 고장 38

편지

외로움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40

민족적권리와 민족성을 지켜 41

인상기

고귀은 진짜 강국 42

민족의 얼을 지키도록 42

《빛나는 조국》에서 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보다 (2) 43

동포들의 존경을 받는 회장 44

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사 (1) 45

평안남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2) 46

야화

다정한 두 이웃집 47

사화

일본에 간 조선의 마상재선수들 48



50

력사인물

국문시가발전에 기여한 정철 48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5) 49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5) 50

민족의 향기

건강과 장식에 좋은 뚝자리 52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중요요구 53

과거죄악을 대하는 판이한 모습 54

적폐청산, 민심의 반영 56

상식

로화방지에 특효있는 손목돌리기운동 29

우리 민족의 밥상차림 36

전통음료—송농 37

조선속담 (확신성) 30

유모아

그 돈으로 하늘소를 산다면... 55

좌담회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품

참가자

오성호: 해외동포사업국 처장

김유삼: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처장

김 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 부회장

주현옥: 가정부인(평천구역 해운2동)

연 옥: 본사기자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해외동포들은 낯이 더해만지는 은혜로운 조국의 사랑을 뜨겁게 받아안으며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언제나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땃땃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한 기회에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해외동포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성호: 여러분도 다 아다싶이 민족의 어버이이신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였기에 해외동포들은 조국이 해방[주체34(1945)년 8월 15일]된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 세계의 정치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침략전쟁과 내전으로 수많은 이민문제가 산생하든 존엄높은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 당당하게, 땃땃하게 가슴뜨겁고 보람찬 삶을 누리며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참다운 역사를 창조해올수 있었습니다.

김유삼: 진정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조선학교에서 공부하던 저는 주체60(1971)년 8월 조국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는 13살이었는데 11살, 6살 나는 남동생들과 함께 조국으로 오는 배에 올라 청진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하루동안에만도 여러차례의 교시를 주시여 우리들이 평양으로 한시바빠 무사히 오도록 비행기까지 띄워주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당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으로 사업하고있던 저의 아버지(김병식)가

여섯자식중 두 아들과 셋째딸을 사회주의조국으로 보낸 용단을 통하여 자신과 가정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조국의 품에 의탁하려는 그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뜨겁게 받아안으시었던 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지방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습니다.

와락 달려와 안기는 우리 세 남매를 사랑의 넓은 품에 꼭 안아주신 그이께서는 부모들의 소식과 우리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일일이 물어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들의 손을 잡고 호수가로 나가시여 6살 난 의성이를 안으시고 11살짜리 의균이가 젓는 뽕트를 타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었습니다.

기자: 한없이 겸허하시고 소탈하시며 인자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김유삼처장의 남매들이 그날 남긴 뜻깊은 사진을 언제인가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그이께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여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것입니다.

주현옥: 그렇습니다. 재미동포녀류기자 문명자의 조카인 저도 하고싶은 말이 많습니다.

미국 백악관출입기자이며 《아시아런합뉴스》대표로서 코대가 높고 명망이 자자했던 고모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가슴뜨겁게 받아안은 해외동포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을 찾아온 고모를 여러차례 만나주신 기회에 정의의 필봉을 들고 해외에서 애국애족활동을 벌리고있는 녀사와 같은 저명한 녀류문필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



오성호



김권



주현옥



김유삼

이라고 교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6(1997)년 7월 중순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3돐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던 저의 고모를 만나지 못하는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며 그에게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서한에서 녀사가 주석님께서 생존해계실 때나 우리결을 떠나신 이후에나 변함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 활약하고있는데 대하여 잘 알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녀사가 조국을 다시 방문하는 기회에 꼭 만나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건강하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쓰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그날에 남기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주체89(2000)년 6월 현지지도로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고모를 친히 만나 환대해주시었습니다.

바로 그날 위대한 장군님과 한자리에서 오찬을 나눈 후 고모는 장군님의 손을 꼭 잡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김권: 정말 들을수록 감동깊은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조국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가를 폐부로 절감한 한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3년전 저는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당시) 제9차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장이었던 김영녀(현재 재중조선인총련협회 부의장)와 함께 주

석단에 올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축기를 드리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의 감격을 무슨 말로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중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똑같이 전승절경축행사, 공화국창건 70돐경축행사와 같은 크고작은 행사들에도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오성호: 해외동포들은 누구나 조국에 오면 자기가 해외동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것은 조국인민들 누구나가 해외동포들을 제 집식구처럼 따듯이 대해주고있기때문입니다.

조국에서는 동포들이 조국을 제 집처럼 드나들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있으며 조국에 체류할 때에는 숙식조건으로부터 방문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관심을 돌려주고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것이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은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입니다.

김권: 옳은 말입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몸은 비록 해외에 살고있어도 절세위인들의 가장 가까이 산다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살고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찾아주신 조국,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신 조국은 곧 수령님의 품, 장군님의 품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주석님, 장군님과 꼭 같은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해외동포들은 이역땅에 살아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있고 조국과 운명도 숨결도 같이하고있습니다.

김유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시던 그 사

랑을 오늘도 변함없이 다 돌려주고계십니다.

3년전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대학교 창립 60돐을 맞이하는 대학안의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조국인민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내주시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에 접하고 총련의 미래를 위하여 기울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보다 높고 태양보다 따사로운 숭고한 동포애, 민족애가 어려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 일본땅 한복판에 세계에 유일무이한 해외교포대학이며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최고전당인 조선대학교가 세워지고 해마다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뿐만 아니라 민족악기들까지 보내주는것과 같은 해외교포운동력사에 그 류례가 없는 전설이 태어날수 있는것은 해외동포들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경지에서 지니고계시는 절세위인들을 모시였기때문입니다.

하기에 재일동포들은 황금만능의 이역땅에서 누구나 쉽게 선택할수 없는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꿋꿋이 걸으며 일신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해오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주현옥: 들으면들수록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해외동포들모두가 영원히 안겨살 태양의 품이라는것을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조국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적소행을 발휘한 해외동포들을 영웅으로, 박사로, 조국통일상, 애국상수상자로 내세워주고있습니다.

김권: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회주의대과정의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사는 조선민족의 한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통일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애국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기자: 김권선생의 훌륭한 말씀은 그대로 해외동포들의 마음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주어 감사합니다.

* * *

다뜻한 품속에서

세심한 사랑에 떠받들려

어느해 깊은 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 문건을 보시다가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그러시다가 문건을 보고 또 보시기를 그 몇번... 마침내 마지막장을 넘기신 그이께서는 걱정 어린 안색으로 천천히 일어서시여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일군들은 주무셔야 할 시간이 썩 지났는데도 취실념을 안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안타까운 마음을 누를길 없었다. 그러다 용단을 내려 그이께서 보시던 문건을 띄어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병력서

이름 한덕수...

무슨 중요문건인가 생각했는데 한 해외동포 일군의 병력서였던것이다.

재일조선동포들의 조국래왕이 실현된 후에도 한덕수의장만은 일본반동들의 책동으로 조국에 오지 못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의장의 건강에 대해 마음을 놓지 못하시다가 얼마전 해당 일군들에게 지시하여 그의 병력서를 총련에서 가져오도록 하시였던것이다. 병력서에는 본인도 모르는 여러 병명이 적혀있었다.

그이께서는 그 병들을 다 고칠수 있도록 온갖 대책을 세워주시였을뿐아니라 귀한 보약들도 보내주시었다. 하여 몇해후 그가 조국에 와서 그이를 뵈게 되었을 때에는 젊은이들처럼 혈기가 왕성하였다. 하지만 그가 식사하는것을 오래도록 지켜보시던 그이께서는 그의 이발이 든든하지 못하다는것을 아시고 지체없이 치료대책도 세워주시었다.

그이의 사랑에 의장은 목이 짝 메였다.

《아버이수령님, 어쩌면 이런 하찮은데까지 다 마음을 쓰십니까. ...》

결국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사랑속에 한덕수의장은 모든 병은 물론하고 병력서에도 밝

허있지 않은 치과병까지 말끔히 치료를 받게 되었다.

부인들을 꼭 데리고 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총련일군들을 만나실 때마다 조국은 본가집과 같다고 하시면서 조국에 올 때에는 가족들도 함께 데리고 오라고 자주 교시하곤 하시었다.

그런데 주체81(1992)년의 뜻깊은 2월에는 총련일군들이 자기들끼리만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한데는 그렇지 않아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자기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앞에 동부인까지 하고가면 그만큼 그이의 바쁘신 시간을 앗아내게 될것이었고 진정 조국을 본가집으로 여긴다면 친정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쳐드리지 않는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기때문이었다. 하지만 제단에는 잘하느라고 한 총련일군들의 처사가 도리어 위대한 장군님을 못내 섭섭하게 해드리었다.

그때 일군들을 통해 총련일군들만 오게 된 사연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서운한 안색을 지으시고 총련일군들에게 축하단으로 조국을 방문할 때에는 부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들의 운명을 수령님과 당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해야 인사가 되지 동무들끼리 왔다가 가셔야 무슨 인사가 되겠는가고, 우리는 총련일군들 뿐아니라 부인들의 운명까지도 다 책임지고있다고, 그렇기때문에 총련에서 축하단으로 올 때에는 부인들을 데리고 오는것이 인사이며 성의로 된다고, 앞으로 부인들을 데리고 오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처자들의 운명까지도 맡아주고 최상의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응심깊은 사랑의 교시를 받아안고 총련일군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장군님의 교시를 꼭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었다.

큰절을 올리다

주체 105(2016)년 11월이었다. 이날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가운데는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장인 리순남동포도 있었다.

당시 대회참가자들 누구나 할것없이 마음이 설레이었지만 보다 더한것은 리순남회장이었다. 한것은 병으로 조국에 오지 못한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으로부터 받은 절절한 당부가 있었기때문이었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촬영장에 나오시었다. 그 순간 흥분을 애써 누르며 한발 나선 리순남회장은 그이를 우러르며 정중히 말씀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이번에 최은복 총련합회의장동지가 우리들을 떠나보내면서 중국에 사는 조선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원수님께 꼭 안녕축원의 큰절을 올려달라고 간절히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이께 무릎을 꿇고 삼가 큰절을 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러는 회장을 다정히 안아일으키시며 그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었다.

꿈결에도 뵈고싶었던 그이의 품에 안긴 회장의 감격은 정녕 끝이 없었다. 얼마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당시) 제9차대회에 참가하였던 해외동포대표단 성원들을 위하여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그이께서 오늘은 자기를 한품에 안아주시며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계신다는 생각에, 자기들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 살고있지만 언제나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살고있다는 생각에 리순남회장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샘처럼 솟아올랐다.

하기에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원수님, 원수님은 우리 전체 조선민족의 운명이십니다.

우리 재중동포들은 죽어도 살아도 원수님 한분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모진 광풍이 불어도 우리는 오직 원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원수님만 받들겠습니다.》라고 심장의 고백을 터치었다.

본사기자 강경수

민족교육의 화원은 만발할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손녀들을 데리고 트라콤포어관에 갔던 저는 조국을 방문한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민족적차별이 그 어느 나라보다 우심한 일본땅에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민족교육을 받으며 성장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수십년전의 일들이 저의 뇌리에 생생히 떠오르는것이였습니다.

그도그럴것이 제가 거의 인생의 절반을 일본에서 보낸데다가 조선대학교 교무부장을 하던 남편의 사업을 방조하면서 민족교육이 일본땅에 어떻게 뿌리내리고 어떤 생명수를 마시며 무성한 잎새를 펼쳐왔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있기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국해방[주체 34(1945)년 8월 15일]을 한없는 기쁨속에 맞이한 우리 동포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기 위해 일본땅 이르는 곳마다 국어강습소를 내왔습니다.

그후 도교조선중학교(당시)의 창립으로 재일조선인중등교육을 실시하였지만 민족교육사업은 일본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난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많은 조선학생들이 자기가 지망하는 대학으로 갈수 없었던것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깊이 료해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조선대학교를 창설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여 자녀들을 대학에서 공부시키려는 재일동포들의 간절한 념원을 풀어주시였습니다.

그때 이 대학교건설을 맡아한 저의 남편은 낮과 밤이 없이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사람들의 민족교

육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긴 일본반동들은 대학교건설을 음모로 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대학교는 끝끝내 주체45(1956)년 4월에 창립되게 되었으며 그후에는 도교에서 경치좋은 곳으로 옮겨져 번듯한 새 교사로 일떠서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새 교사가 일떠서던 날 우리 동포들은 목청껏 만세를 불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와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공장을 한 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세계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새로운 국가예산 항목을 내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이처럼 어려운 때 거액의 자금을 해외동포자녀들을 위해 해마다 보내주시였을뿐 아니라 조선대학교건설에도 막대한 자금을 돌려주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조국에서 보내준 자기에 갖든 사연에 대해 다는 몰랐습니다.

한번은 조국에 갔다온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습니다.

《난 조국에서 동포자녀들을 위해 거액의 돈을 보내주어 조국이 이제는 허리를 편 모양이다 하고 생각했소. 그런데 조국에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자금을 한푼한푼 쪼개 가며 쓰고있었소. 더구나 1956년에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



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제 1만t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시었다는것이 아니겠소.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해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면 수만의 강재를 살수 있는 돈이었던 말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그이의 사랑에 우리 부부만이 아니라 재일동포들 누구나가 뜨거움에 목이 매였습니다.

바로 그 생명수와도 같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있어 재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은 어디서나 글소리 랑랑히 울리며 우리 말과 글을 익혔고 오늘은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총련의 어엿한 일군들로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민족이 대국상을 당하던 그 날에도,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에도 재일동포들에게 안겨주는 생명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있습니다.

진정 위대한분들을 높이 모시여 민족교육의 화원은 더욱 만발할것입니다.

평양시 평천구역 봉남동 리귀남



이번에 조국을 방문하여 만수대언덕에 올라 태양과 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르느라니 금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 더 원심을 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던 절세의 위인들의 인자하신 모습이 생생히 떠올라서였습니다.

감격도 새로운 주체83(1994)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던 저는 뜻밖에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이께서는 저를 비롯한 축하단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으며 우리들의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구석구석 헤아려주시었습니다.

너무도 인자하고 자애에 넘치신 그이의 모습은 한껏 긴장되었

변함없이 따르렵니다

던 우리들의 마음을 봄날의 훈향 마냥 따뜻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저의 일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은 날로 될 줄이야...

저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그날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시던 사랑을 다시는 느낄수도 받아안을수도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너무도 짧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대로 이어주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조국이 시련을 겪던 시기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을 위하여 늘 마음을 쓰시며 재중동포들이 불편없이 조국에 다닐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었습니다. 조국을 방문한 재중동포예술단을 만나시어 그들의 공연도 보아주시고 공연을 잘했다고 축하도 해주셨으며 축하잔도 쥘어주시면서 앞날을 축복해주시었습니다.

사랑에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고 우리 재중동포들은 나날이 더해만지는 그이의 사랑을 폐부로 느끼며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통일애국사업에 더욱 매진하였습니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회원들인 안미자, 송선자, 김영옥동포들을 비롯한 많은 동포들은 조국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저없이 가산을 팔아 지성어린 물자들을 마련하였고 자식들도 그 길에서도도록 적극 떠밀어주었습니다.

그렇수록 해외동포들에 대한 조국의 사랑은 더해만 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 우리 동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시었습니다.

조국에서 큰 대회가 열릴 때마다 해외동포들을 불러주시고 언제나 자신과 가까운 자리에서 기념사진을 찍도록 해주셨으며 우리들이 마음놓고 조국을 오고갈수 있도록 왕복사증도 배려해주시었습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저는 그이께서 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실 때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녕 망망대해에는 끝이 없고 기슭이 있어도 해외동포들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사랑은 끝과 기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동포들은 조국과 떼어놓고 자신들을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하기에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밀려온대도 조국은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러하듯이 저는 앞으로도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뒤흔들고 간직하고 변심없이 조국을 받들어나가며 우리 련합회의 동포들도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회장 리순남

매혹과 진정

매혹은 흠모를 낳는 마를줄 모르는 샘물이라고 한다.

불멸의 꽃에 매혹되어 사시장철 쫓는 샘물과도 같이 자기의 마음을 변함없이 바치고있는 해외동포들속에는 훈춘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총경리 양홍준동포도 있다.

10여년전 양동포는 고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고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세계인민들이 정성껏 피워 전시한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한적이 있었다.

아름답게 피어난 불멸의 꽃을 바라볼수록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이 어려와 그는 오래도록 흥분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때부터 양홍준동포는 비록 화초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살고있는 곳에도 불멸의 꽃을 보급선전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리용하던 많은 자금을 온실과 전시관건설에 바치였다.

이렇게 되어 그는 고국과 가까운 훈춘시에 온실과 명화관을 훌륭히 일떠세우게 되었다.

양동포는 재배공들과 함께 불멸의 꽃의 생육에 알맞는 물질기술조건을 원만히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으며 온실에서의 재배기술을 하나하나 터득해나갔다.

그 나날 양동포는 여러차례 평양과 라선, 훈춘을 왕복하면서 원예전문가들을 만나 경험을 배웠으며 재배와 관련한 도서들도 구입하여 탐독하였다.

그렇게 애쓴 보람이 있어 그는 마침내 주체96(2007)년 10월에 명화관에서 첫 훈춘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를 열었다.



꽃재배에 정성을 기울이는 양홍준동포

그때부터 동포는 지금까지 해마다 전시회를 성대하게 열고 불멸의 꽃을 널리 보급선전하고있다.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이면 수많은 중국인민들과 외국인들, 중국에서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이 다함없는 흠모의 한마음을 안고 명화관을 끊임없이 찾아왔다.

전시회장을 참관한 중국 길림성호문상무유한공사 총사장 헤달의(남자, 한족)는 《불수록 아름답고 매혹적이다. 이 꽃들을 피우기 위해 기울인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이 엿보인다. 세계명인으로 떠받들리우시는 조선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님의 존함을 모신 꽃이기에 그렇듯 많은 사람들이 지성을 바쳐 피우고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훈춘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불멸의 꽃을 더 활짝 피우도록 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불멸의 꽃에 매혹되어 양홍준동포가 바친 진정을 높이 평가하여 조국에서는 4년전 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훈장을 수여하였다.

본사기자 연옥



제8차 훈춘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회에 참가하고 (양홍준-오른쪽에서 다섯번째)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진행되는 명화관

민족적 긍지를 안고사는 동포들

몸은 비록 이역땅에 살아도 언제나 조국과 마음을 잇고사는 해외동포들의 모습이 사진마다에 비껴있다.

노래를 불러도 조국의 노래를 즐겨부르고 춤을 추어도 민족정

서가 넘치는 어깨춤을 추는 동포들이다.

늘 조국을 그리워하며 이역땅에서도 우리의 말과 글을 익히고 설명절, 추석과 같은 민속명절날이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

족음식, 민속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화목한 동포사회를 가꾸어가는 동포들.

그들속에는 일본땅 한복판에 보란듯이 조선대학교를 세우고 민족교육을 더욱 강화해나감으

로써 후대들도 애국의 대를 깨끗이 이어나가도록 하는 재일동포들의 모습도, 언제나 조국소식에 눈과 귀를 맞추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국인민들과 마음과 힘을 합쳐가는 재일동포들의 모습도, 고유한 민족옷을 입고 노래부르고 악기를 타는 재로씨야와 재우즈베끼스





만 등의 동포들의 모습도 보인다.

나라없던 지난 세월 살 길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 현해탄이며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이역땅으로 가서 살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선민족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해외에서도 조선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뿔뿔하게 살아가고있는 동포들이다.

하기에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오늘과 같이 긍지높고 존엄높은 민족으로 되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애국의 자취는 영원히 남아있다

조국에는 해외동포상공인들의 애국적소행을 전하는 공장들과 건축물들이 적지 않다.

애국편직물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장, 만경대애국농장공장, 김만유병원, 평양보링관, 안산택거리...

이런 공장들과 건물, 거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해외에 살면서도 조국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해외동포들의 애국의 마음을 읽곤 한다.

1970년대초 평양의 창광산기슭에 건설한 애국편직물공장이 바로 그러한 공장들중의 하나이다.

당시 조국에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맞으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있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일군들과 애국적상공인들은 조국에 조금이라도

도 이바지하고싶은 심정에서 여러가지 편직설비와 제직설비들, 적지 않은 자금을 마련하여 보내왔다. 조국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 품치수려한 평양의 명당자리에 애국이라는 이름을 단 편직물공장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공장이 다 건설된 다음에는 여러차례나 현지에서 나오시여 총련의 애국적상공인들의 지성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를 널리 선전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주체81(1992)년 4월 15일을 맞으며 건설된 애국최종락피복공장에도 재일동포상공인의 애국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일본에서 살고있던 최종락동포는 1980년대에 조국을 여러차례 방문하면서 자기도 나라에 무엇인가 이바지하고싶은 심

정을 금할수 없었다. 여러날을 생각하던 끝에 피복공장을 짓기로 결심한 그는 여러가지 재봉설비들과 적지 않은 자금을 기증하였다.

사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설비들과 자금으로 말하면 그가 한푼두푼 어렵게 마련한것들이었다. 더우기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일본땅에서 자기가 피땀으로 마련한 재부를 내놓는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신이 더 잘 알았던것이다.

그러나 나라없던 시절 이역만리 일본땅에서 온갖 민족적천대와 멸시를 당하다가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이 된 그것기에 많은 자금과 설비들을 서슴없이 조국을 위해 바칠수 있었던것이다.

조국에서는 그 마음을 높이 여겨 주체78(1989)년 5월 건설력량을 무어 대동강반에 공장을

김만유병원



평양보링관



애국편직물공장

크게 건설하도록 하였다.

비록 이름과 나이는 서로 달라도 조국의 번영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동포들의 애국의 마음은 진할줄 몰라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많은 동포기증공장, 단위들이 일떠섰다.

평양의 대동강구역에 일떠선 일본 니시아라이병원 원장이며 의학박사였던 김만유동포의 지성이 담긴 김만유병원, 재일동포상공인 권영숙과 그의 가족들이 마련한 평양보링관...

동포들의 애국의 마음을 영원히 전해가기 위해 많은 동포기증공장과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오늘 그들의 지성이 담긴 설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하기에 세월은 멀리도 흘러이제는 조국에 기여한 애국적상공인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가고있지만 그들이 발휘한 소행은 애국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임철병



애국묘향피복공장





잊을수 없는 사람들

(전호에서 계속)

그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 나는 고유수에 가면 김보안의 집에 꼭꼭 들리곤 하였다.

김보안은 약국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얼마간의 돈을 우리가 운영하는 삼광학교 후원비로 내곤 하였다. 그는 교육열이 높은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을 계몽시키는 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있었다. 우리가 삼광학교에 나와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하면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였다.

김보안은 고유수사람들이 돈계산도 할줄 모르니 이런 까막눈들을 가지고 조선독립을 어떻게 하겠는가고 개탄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어른들이 돈계산을 하지 못했다면 잘 믿지 않겠지만 그 당시 중국사람들과 길림성에서 살고있던 조선의 이주민들중에는 돈계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성에서 발행되는 돈이 다르고 현에서 유통되는 돈이 서로 다른데다가 길림관첸니, 봉천다양이니, 길림소다양이니, 은다양이니 하는 여러가지 돈들이 저마끔씩 가치가 달라서 글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거리에 가도 돈계산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야학에 농민들을 불러다놓고 산수시간에 돈계산법을

배워주었다.

돈계산도 할줄 모르는 까막눈들이라고 흘겨보던 사람들이 가감승제까지 척척 하는것을 보고 김보안은 《아무렴 그렇겠지. 조선사람이 원래 머리아 명석하지.》하고 흡족해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무식자로부터 유식자로 되는 과정을 보는것이 재미난다.》고 하면서 야학도 참관하고 삼광학교에 나와서 수업참관도 하였다.

삼광학교의 고등과 학생들은 하나같이 지혜롭고 총명하였다. 그 학생들중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인상깊게 남아있는 인물은 류춘경과 황순신이다.

그들은 둘 다 카룬의 혁명조직들에서 추천되어온 학생들이었다. 류춘경의 아버지 류영선은 진명학교 교원으로 일하면서 우리의 혁명사업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 당시 류춘경, 황순신 동무들의 나이는 14~15살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고유수에 왔다가 카룬이나 길림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우리의 무기운반을 부탁하곤 하였다. 군벌들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덜하였다.

류춘경과 황순신은 언제나 그 부탁을 성실하게 리행하였다. 그들은 치마밑에 무기를 감추고 50m쯤 떨어져서 우리의 뒤를 따르곤 하였는데 길가에서 군

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는 여러번 조사를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 무심히 통과시켜주곤 하였다.

황순신은 해방후 조국에 돌아와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는 삼광학교시절의 소년탐험대원답게 일을 본때있게 하여 다수확농민으로 이름을 날리며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속에서 한생을 값있게 살아왔다. 전후시기에는 한동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도 활약하였다.

류춘경은 만주에서 여러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리관린처럼 인생말년을 조국에서 보내고싶다고 하면서 1979년에 귀국하였다.

황순신처럼 젊은 나이에 귀국했다더라면 그도 이름있는 여성활동가가 되어 사회와 인민을 위해 좀더 활력있는 후반생을 보냈을것이다. 삼광학교시절의 류춘경은 녀학생들중에서 글도 제일 잘 쓰고 연설도 제일 잘하고 두뇌도 제일 명석한 전도가 촉망되는 소녀였다.

우리가 안도에서 유격대창건준비사업을 하고있을 때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내가 있는 곳에 와서 투쟁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때가 무장투쟁을 시작하려고 서두르던 시기이고 또 일단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되면 여자들이

남자들을 따라다니기 힘들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기때문에 나는 그에게 안도에 오라는 편락을 보내지 못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녀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무장투쟁에는 적합치 않다고 여기었다.

귀국당시 류춘경의 나이가 50살정도만 되어도 우리는 그를 공부시켜 사회활동에 참가시켰을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혁명투쟁에 직접 참가했거나 관여한 사람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나이가 좀 들어도 그들을 공부시키고 알맞는 자리에 배치하여 정치활동을 시키는 원칙을 세웠다. 아무리 총명하고 쓸모있는 사람도 오래동안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 파묻혀있으면 사고능력이 감퇴되고 세상물정에 어두워지며 인생관에 녹이 쓰는 법이다.

해방후 적지 않은 투사들과 혁명투쟁연고자들이 적재적소에 등용되지 못하고 파묻혀있었다. 종파분자들은 항일투사들이 경력은 좋지만 무식해서 쓸모가 없다고 하면서 오래동안 그들을 간부로 등용시키지 않았다. 무식하면 공부를 시켜서라도 제구실을 똑똑히 할수 있도록 강심을 먹고 키워야겠는데 배척하고 외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자유자녀들이나 혁명투쟁연고자들을 찾아내면 그들을 고급당학교나 인민경제대학 같은데서 공부시켜

그들의 준비정도에 따라 간부로 등용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공부를 하지 않고 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면 혁명을 오래한 투사들도 시대의 락오자가 되고 만다.

수많은 투사들과 그들의 유자녀들, 항일혁명투쟁방조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당과 국가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저명한 사회활동가로 자라났다.

오가자의 문조양도 그런 사람이였다. 문조양은 오가자에서 반제청년동맹 조직부장으로 활동할 때 변달환, 최일천, 리몽린, 김해산과 함께 우리 일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그는 우리와 함께 글도 많이 쓰고 연설도 많이 하고 대중조직들을 꾸리는 사업에도 정열적으로 참가하였다. 아마 회의도 그의 집에서 제일 많이 했던것 같다.

나는 오가자에 가있을 때 문조양의 형 문시준과 최일천이네 집신세를 많이 졌다.

문시준은 마음씨가 후한 사람이였다. 그는 몇달씩이나 돈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었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활동할 때 문시준이 우리일행을 위해 돼지까지 잡아주며 아무쪼록 나라를 기어이 독립시켜달라고 부탁하던 일이 어제일같다. 나는 그 집에서도 오래동안 칩식을 하였다.

문시준네 집에서는 식사를 할 때마다 밥상에 마늘짠지를 놓아주곤 했는데 그 짠지맛이 별맛이였다.

그 마늘짠지맛이 얼마나 독특했던지 해방후 문시준의 딸 문숙곤을 만나니 그 생각부터 났다. 그래서 그를 집에 초청해다가 마늘짠지만드는 방법을 배워주게 하였다.

내가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우리 사람들이 마늘짠지를 만들어 밥상에 놓아주지만 어려울 때 오가자에서 조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달게 먹던 그 짠지맛에는 비길수가 없다.

얼마전에 문조양은 생일 80돛을 쇠었다. 나는 그때 오가자시절을 생각하며 그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주고 생일 여든돛상을 차려주었다.

나는 오가자에서 반제청년동맹 위원장이며 《농우》의 주필이였던 최일천의 집에서 몇 주일씩 류숙하였다. 그 당시에는 그를 최천, 최찬선이라고도 불렀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찍혀진 최형우라는 이름은 해방직후 서울에서 저술사업을 할 때 사용한 그의 필명이다.

오가자에서는 그가 제일 개명한 사람이였다. 그는 김혁처럼 시는 짓지 않았지만 뛰어난 산문가의 필력을 가지고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유로 여러해동안 장춘에 나가 비밀공작원활동을 하면서 《동아일보》 지국장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 과정에 우리에게 대한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좋은 글을 써서 투고도 자주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열정과 헌신을 다해가시는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국제 사회의 흠모의 열기가 온 행성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조국인민은 물론 인류가 격찬해마지 않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품모는 그이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을 다해가시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하고있는 한 육종장을 찾으시였다. 너무도 뜻밖에 그이를 만나뵈온 일군들은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이곳의 길이 너무도 가파롭고 험하였기때문 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런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으시면서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이시려는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육종장을 꾸려놓은 다음에 와서야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건설할 때 와보아야 애로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건설방도도 제시해줄 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위하여 한 평생 멀고 험한 애국헌신의 길을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심정으로 이보다 더 험하고 위험한 곳들도 다 가보려고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려는 그이의 철석같은 의지를 받아 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작은 목선으로 사품치는 날바다를 헤쳐가신 이야기며 인민이 리용할 삭도의 안전을 위한 시험운행의 첫 손님이 되신 이야기, 새로 만든 경비행기의 조종실에 앉으시여 위험한 시험비행까지 해보신 이야기 등은 조국인민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어느때인가는 건설장의 진창길도 주저없이 걸으시며 안전관간도 없는 계단을 오르시였고 또 언제인가는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로고를 바치시고도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마련해놓은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던 그이이시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레년에 없는 폭열이 쏟아지는 때에 강원도양묘장을 찾으시여 평범한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오래도록 기다려주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었고 한겨울의 폭설

을 맞으시며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인민이 리용할 살림집에 자그마한 손색이 있을세라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인민을 위해 그이께서 바치신 헌신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지난해 어느날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아주시면서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지금처럼 무더운 삼복철이나 추운 겨울에 인민들이 버스정류소에 서있는것을 볼 때면 승용차를 타고가는것이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일군들은 눈굽을 적시였다. 그이의 가슴속에 사람들이 버스정류소에서 기다리며 서있는 모습이 그리도 아프게 자리잡고있는줄은 다는 몰랐기때문이였다. 그이께 있어서 인민은 하늘같은 존재였으며 인민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정을 바치고만싶은것이 그이의 열망이였다.

하기에 깊은 밤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시면서 우리가 만든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들이 거리를 누비며 달릴 때에는 정말 멋있을것이라고,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인민들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는것이 우리 당이라고 하시며 그토록 기뻐하신 그이이시였다.

그이도 인간이다. 그이이시라고 여름철이면 시원한 해변가를 거닐고싶지 않으시고 겨울이면 따뜻한 온돌방이 그리지 않으시랴. 하지만 그이께서는 보통의 각오와 의지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인민을 위해 1년 365일 불철주야의 강행군을 이어가고계시는것이다.

진정 그이의 열화같은 열정과 헌신이 있어 조국땅우에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섬으며 조국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된것이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휘황한 레일을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고 있는것이다.

권정남

주체사상은 애국애족의 사상

- 사회과학원 연구사 강명흡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주체사상은 그 철학성과 진리성, 논리성과 견인력 그리고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널리 연구보급되고있다.

우리는 오늘 주체사상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며 조국의 융성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사상이라는데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강명흡: 주체사상은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는 사상인 동시에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이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사상이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근본담보로, 나라와 민족성원들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기때문이라고 말할수 있다.

어떤 민족이든지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민족의 발전을 이룩하고 그 위용을 떨쳐나가는 과정은 곧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그 어떤 조건에서나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고수해나갈 때 개인의 자주권과 존엄도 지켜나갈수 있으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도 성과파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기자: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성원들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

한 선결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구성하고있는 개별적사람들의 자주성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뗄수 없이 련관되어있다.

강명흡: 옳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개별적사람들의 자주성의 모체이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자 곧 매개 민족성원들의 운명이다.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자주권을 잃으면 그 민족의 개별적성원들은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지난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민족의 력사를 놓고보아도 민족의 자주성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곧 각자의 운명이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매 개인의 생존과 발전을 직접 좌우한다.

기자: 주체사상이 애국애족의 사상으로 되는 근거 역시 마찬가지로 본다. 매 개인의 운명과 발전이 나라와 민족을 떠나 생각할수 없듯이 주체사상 그자체가 나라와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사상이기때문이다.

사람들의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된다. 조국은 사람들에게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밑천과 함께 정신적힘을 주고있는데 그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어머니품으로, 요람으로 되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며 더욱 빛내여 나가려고 애쓰게 된다.

강명흡: 사람들이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것은 자기의 나라와 민족이 자신의 생존과 발전에서 생명선을 이루는것과도 관련되어있다.



사람들은 생활에서 흔히 자기 고향, 자기 동료, 자기 나라가 제일이라고 말하고있다. 이때의 그 감정과 태도는 자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자기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결합시켜본데 있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조국과 민족의 융성번영에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있다는것을 자각하는 데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더욱 사랑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이다.

오늘 조국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에서 가장 기본으로 되는것은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다. 조국의 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우리 민족은 분렬로 인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완전히 참담게 실현될수 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인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우리 민족의 융성과 번영을 위한 애국애족의 위업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 * *

석탄증산으로 들끓는다



2. 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증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석탄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탄광에서는 일군들부터가 현장에 내려가 탄부들과 함께 일도 하고 걸린 문제도 풀어주면서 대오의 앞장에 서고있다. 그들은 증산경쟁 그자체가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경쟁단계와 목표, 총화, 평가방법 등을 현실성있게 세워 탄부들의 증산열, 경쟁열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이러한 사업들로 하여 탄광에서는 증산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그 앞장에는 김유봉청년돌격대원들이 서있다. 이곳 청년탄부들은 가장 불리한 막장조건에서 일하지만 모든 애로와 난관을 파감히 뚫고나가며 소대호상간, 탄부호상간 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고있다.

돌격대일군인 김충렬은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강성할 래일이 앞당겨진다고 하면서 앞으로 자기들은 청년의 위용을 떨치며 증산경쟁의 앞장에서 내달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성과는 9갱 탄부들속에서도 이룩되고있다.

이곳 탄부들은 한덩이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어 나라의 석탄산을 높이 쌓아갈 하나의 지향을 안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채탄공 김광선은 말하였다.

《나라를 위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모두를 서로

돕고 위하면서 네일내일이 따로없이 일하게 하였다. 채탄공은 탄을 캐면서 갱보수를 하기도 하고 운반공은 짬시간을 리용하여 채탄을 하는 등 누구나 석탄증산을 위해 스스로 두뚝, 세뚝의 일을 찾아하고있다.》

그러면서 그는 서로의 지혜를 합쳐 합리적인 작업방법도 찾아내고 또 다음 교대를 위해 작업준비를 미리 해놓는 기풍이 발휘되는가 하면 공구와 지구, 부속품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 채굴과 채탄, 운반설비수리에서도 성과를

가져오게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성과는 비단 그들만이 아닌 1갱과 3갱, 7갱과 12갱 등 모든 갱들의 일군들과 탄부들속에서도 높이 발휘되고있으며 이런 투쟁기풍은 탄광적으로 많은 량의 석탄을 증산하게 하고있다.

지금 2. 8직동청년탄광의 모든 갱들에서 세차게 일어나는 증산경쟁의 열풍속에는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깃들여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축전지생산이 늘어나고있다

대동강축전지공장은 조국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전형단위들중의 하나이다.

지금 공장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있는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축전지생산을 보다 늘여나가고있다.

그 앞장에는 자력갱생직장이서있다.

기사 허명균은 말하였다.

《신년사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직장종업원들의 기세는 매우 높다. 우리 직장에서는 비약의 원동력, 전략적자원인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기간 직장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하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직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강화하였을뿐아니라 축전지생산에 필요한 적지 않은 원료,

자재들을 우리의것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였다.

최근에만도 직장에서는 전기저항로를 새로 연구제작하고 설치하여 재생연생산량을 배로 늘이였으며 제진장치를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그 생산실수율을 현저히 높이였다. 뿐만아니라 폐기된 축전지전극을 재생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년간 수백t의 연을 재생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직장에서 이룩되고있는 좋은



경험은 다른 직장들에도 급속히 보급되어 공장적으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수지함직장에서는 사장되였던 대형사출기를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생산에 적극 리용하는가 하면 격자구조직장에서는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해 실리적인 격자열경화실이 꾸러지고 소다생산공정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생산물의 질을 훨씬 높이고있다.

원료, 자재들을 국내원료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주목할만 한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격리관직장장 구광일은 말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은 우리 직장에서도 일어나고있다. 직장에서는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염화비닐을 국내원료로 리용

하고 폐격리판을 재생리용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모두가 달라붙었다.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았지만 수십차례의 실험과 시험생산, 설비개조 등을 진행하여 현재 우리는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훨씬 높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선 직장들의 경험이 성과를 낳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의지를 안고 앞선 단위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직장들에서도 울려나오고 있다. 하여 지금 공장의 축전지생산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5.1절의 근로자들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 해마다 이날을 맞을 때면 조국땅 그 어디서나 근로자들의 기쁨과 랑만이 차넘치고 있다.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근로자들의 축구, 룽구, 배구, 바줄당기기,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유희오락경기들이 진행되는가 하면 혁신자축하모임과 특색있는 축하공연무대도 펼쳐져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옥류관, 청류관 등 급양봉사당들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봉사가 진행되고 극장들에서뿐만아니라 경치좋은 곳들에서 경축공연이 펼쳐져 근로자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이날을 맞으며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도 각지에 나가 근로자들과 함께 명절의 하루를 보내며 그들을 위훈과 혁신으로 고무추동해주고 있다.



다채로운 체육경기들로 5.1절을 즐긴다.



특색있는 축하공연무대들도 펼쳐진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원고를 보고있는 주필(왼쪽)

친근한 길동무로 30년

동포여러분, 주체78(1989)년 5월 해외동포들을 위한 잡지 《금수강산》 편집부가 조직된 때로부터 어언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제명을 《금수강산》이라고 활달하게 쓴 첫 창간호를 펼쳐들고 기뻐하던 동포들의 모습이 어제런듯 눈에 선히 안겨옵니다.

돌이켜보면 30년 세월 잡지 《금수강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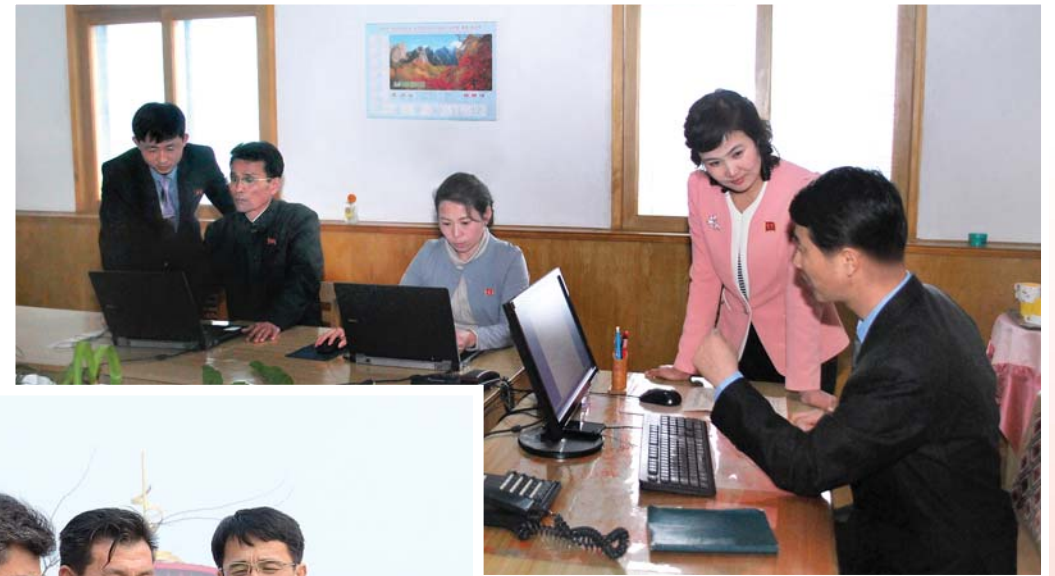
번역원들

잡지편집을 하고있다.



기자, 편집원, 번역원들은 동포여러분과 함께 숨쉬고 걸으며 민족의 붓, 애국의 붓으로 겨레와 조국앞에 지닌 성스러운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중국과 로씨야, 일본 등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지역에서 살든 동포들에게 조국소식을 알려주며 민족의 넋을 심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민족의 위대성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는 력사의 진리를 겨레와 함께 매일, 매 시각 느껴온 우리입니다. 하기에



취재기자들



진하며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조국인민의 벽찬 현실을 여러가지 형식과 내용의 사진과 글들로 동포들에게 알려주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였으며 민족성을 지키고 꽃피우는 동포들의 다양한 생활과 조국방문소식, 가족친척들의 행복한 생활모습 그리고 조국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 지리 등을 흥미있게 지면에 담아 잡지가 명실공히 동포들을 위한 잡지가 되도록 하였습니

다. 동포들을 취재하고있다.

잡지 《금수강산》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강국의 미래를 안아오시기 위해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혁명령도소식을 폭넓게 소개하여 독자들속에서 깊은 감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뿐만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



부인병치료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는 의료일군들

평양산원에 혈관조영치료과가 나온지는 8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나날 이곳에서 생의 활력을 다시 찾은 여성들은 1 600여명에 달하고있다.

여기에는 리명혜과장을 비롯한 이곳 의료일군들의 남다른 노력이 깃들어있다.

그들은 자궁동맥전색술로 자궁근종, 선근증치료는 물론 산후출혈과 자궁외임신에 대한 치료도 진행하고있다.

환자들을 정상적으로 관찰한다.



혈관조영설비를 리용하여 가느다란 관을 동맥 내에 넣어 그 관을 통하여 피줄을 막는 전색물질을 주입하고 피공급을 중단시켜 근종을 축소시키거나 소실시키는 이 방법은 수술이 끝나면 피부에 주사침만 한 자리가 남기때문에 환자에게 주는 부담도 적고 수술후 회복도 빠르다.

많은 여성들이 배를 열고 진행하는 수술보다 이 방법을 원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불임증으로 8년이나 고생한데다가 자궁근종의 크기가 15cm인 여성이 병원에 와서 자궁동맥전색술을 받았는데 수술후 11달만에 4kg이 넘는 아들을 낳았다.

조국에서 혈관인터벤션기술의 하나인 자궁동맥전색술을 처음으로 개척한것은 리명혜과장이였다.

원래 김만유병원에서 복부외과 의사로 일하다가 13년전에 산원에 배치받은 그는 여성들이 자궁근종으로 인하여 자궁적출술을 받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혈관인터벤션기술연구에 뛰어들게 한 계기로 되었다.

수많은 의학자료들을 보면서 하루에도 수십차례나 혈관조영설비를 리용하여 화상을 인식하였으며 모의실험도 수차례 걸쳐 진행하였다.

최균만, 리성기, 전명일, 로영희의사들도 그의 연구를 적극 도와 나섰다.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연구를 시작해서 1년만에 혈관인터벤션기술로 양성종양을 비롯한 산부인과질병들을 치료할수 있게 되었으며 혈관조영치료과도 조직되게 되었다.

혈관조영치료과는 나오자마자 환자들의 신망을 얻었다.

누구나 이 치료과에서 수술을 받고는 의사들의 두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연방 하였다.

치료성과가 확대될수록 리명혜과장과 김철남, 김정철, 신순이의사들을 비롯한 이곳 의료집단은 조선여성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새로운 첨단수술방법들을 부단히 연구하고 림상실천에 적극 구현해나가고있다.

이 나날 불임증과 다발성자궁근종으로 고생하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귀여운 아기를 안겨주었으



수술장에서

며 산후출혈을 일으키고 자궁외임신으로 안타까와하던 여성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었다.

평양에서 진행된 제12차, 제17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과학토론회들과 주체105(2016)년에 진행된 전국과학기술축전(당시)을 비롯한 여러 축전, 전시회들에서 이 자궁동맥전색술에 의한 자궁근종과 선근증의 치료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금 혈관조영치료과에서는 수술에 필요한 전색물질들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를 심화시키는 것과 함께 산소동맥전색술을 비롯한 산부인과 혈관인터벤션기술의 영역을 계속 넓혀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해외에 사는 동포들은 잡지 《금수강산》의 열성독자일뿐아니라 열성투고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날 《금수강산》은 해외동포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동포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자리잡았고 널리 애독되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김영희동포는 《기다려지군 하는 〈금수강산〉입니다. 우리는 〈금수강산〉 잡지를 보면서 민족의 넓이 흐려지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고있으며 조국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국의 소식과 우리 동포들의 소식을 더 많이 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잡지 《금수강산》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동포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바입니다.

앞으로도 잡지 《금수강산》은 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친근한 길동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더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입니다.

《금수강산》편집부

상식

로화방지에 특효있는 손목돌리기운동

사람의 손과 뇌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때문에 손목돌리기운동을 하면 전신을 움직이는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왼손은 시계바늘방향으로 돌리고 오른손은 시계바늘과 반대방향으로 돌리는것이다.

만약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편안한 기분속에서 손목을 돌리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자률신경을 안정시킨다.

손목돌리기를 한 후와 돌리기 전의 상태를 분석한데 의하면 인체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손목을 돌리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손목돌리기를 진행한 후에는 이 물질의 반응이 나타났다고 한다.

* * *



말린꽃제품들의 일부

말린꽃에도 향기가 있다

아름다움과 사랑, 축원의 상징인 꽃을 어떻게 하면 오래동안 보존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누구나 관심하는 문제이다.

그것을 평양화초연구소 말린꽃제작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해결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말린꽃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하여 이곳 전시장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전시장을 찾았을 때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전시장에는 말린꽃제품들로 만든 꽃다발, 꽃바구니는 물론 꽃병에 꽂은 꽃, 미술작품처럼 액틀에 넣은 꽃 등이 마치 박물관 처럼 전시되어있었다.

꽃의 종류와 모양도 각이하였지만 그 하나하나의 말린꽃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졌는지 생활을 보는듯 하였다.

말린꽃제품에 완전히 매혹된 두 녀성은 이 꽃들이 말린꽃이 아니라 어떤 화학적작용으로 생육기일을 늘인 꽃인지도 모르겠

다고, 금시 꽃향기가 풍겨오는듯싶고 꿀벌들과 나비들이 꽃잎에 내려앉을것만 같다고 제 생각들을 저저마다 터놓으며 기쁨을 금치 못해 하였다.

말린장미화분과 말린나리꽃병도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생화장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말린장미화분이 더욱 그러하였다.

이곳 일군의 말에 의하면 말린장미화분은 장미를 채취하여 꽃과 줄기를 특수한 방법으로

있어서 손색이 없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대성구역의 정인준로인은 자기는 어릴적부터 해바라기꽃을 무척 좋아하였다고, 이 말린해바라기꽃액틀을 집에 가져다 사계절 보겠다고 하는것이였다.

생일이나 결혼식을 비롯하여 여러 계기마다 축하의 의미를 담아 서로 주고받을수 있게 만든 기념품말린꽃장식함과 말린꽃액틀제품 등도 하나하나가 훌륭한 예술작품을 방불케 하여 사람들이 저마다 요구하고있었다.

이곳의 일군인 리형식은 말하였다.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면 저희들은 우리가 만든 소박한 말린꽃을 보시고 그토록 만족하시며 말린꽃을 만들어 전시도 하고 인민들에게 봉사도 해주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안겨와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 자기들은 최근에만도 여러가지의 꽃재료를 가지고 100여종의 말린꽃제품들을 만들었지만 미처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고, 앞으로 제품들을 더 많이, 더 잘 만들어 인민들의 높아가는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말린꽃제품들을 사들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하였다.

비록 말린꽃에는 향기가 없어도 거기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보다 아름답고 행복해질 조국인민의 생활의 그윽한 향기가 비껴있다고.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전시장에서



조선속담 (확신성)

— 손바닥에 장을 지지(짚)다

① 상대편이 어떤 일을 할수 없으리라는것을 장담하여 이르는 말.

② 자기가 주장하는것이 틀림없음을 장담할 때 쓰는 말.

— 죽을 병에도 살 약이 있다

죽게 된 병에도 그것을 고치는 약이 있는 법이라는 뜻으로 앓는 사람에게 락심하지 말라고 신심을 줄 때

이르는 말.

— 어느 말이 물 따다하고 여물 따다하랴
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요구할것이 틀림없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열에 아홉

《거의 레외없이 그렇게 될것》이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 * *



명화폭속에서 보낸 시간

볼수록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곳이다, 명화폭속에서 보낸 시간은 그야말로 즐거운 시간이다. ...

이것은 만수대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을 참관한 해외동포들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 말이다.

3층으로 되어있는 전시관에는 창작사의 미술가들이 창작한 조선화, 유화, 도자기, 수예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작



품들이 전시되어있다.

전시관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이름있는 공훈예술가들과 인민예술가들이 창작한 작품들이다.

특히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

민예술가들인 정창모, 선우영, 우치선을 비롯한 대가들이 생전에 창작한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작품들과 인민예술가들인 리경남, 김명운, 최창호를 비롯

한 명화가들이 힘있고 세련

전시물들을 돌아보는 재중동포들



된 필치로 창작한 작품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한다.

전시관에는 국적도 인물도 직위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 남긴 일화들도 많다.

전시관 관장 김영희의 말에 의하면 3년전에 중국의 한 관광객은 조선화 《사철 푸르름 변치 않는 소나무》를 보고 너무 멋있어 발걸음을 떼지 못하다가 그 자리에서 가져갔으며 5년전에 이곳을 찾았던 중국의 미술애호가인 수에 《축원의 꽃바다》를 보고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며 자기가 틀까지 다 사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주체78(1989)년 만수대 창작사에 미술작품전시관이 세워진 때로부터 이곳을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찾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재미동포들도 전시관을 찾았다.



《조국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라》

우리는 얼마전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에서 수십년간 연구사업을 해오고있는 정태호박사를 만나보고 인간의 열정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60살을 넘긴 그는 보통키에 몸이 다부진 평범한 연구사였다. 그는 우리와 만나서도 군소리가 없었다. 전력문제,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실례로 오물소각발전소건설에 대한 착상이라든가 화력발전소건설에서 나서는 최신과학기술적문제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펴놓을 때 매우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그의 모습을 대하며 우리가 한 생각은 그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연구소에서는 물론 집에 들어가서도 연구사업밖에 모른다고 한다.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열정이 놀라왔다. 그럴수록 과연 무엇이 그를 불같은 사람으로 만들고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일본 오카야마현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기었다. 그의 꿈과 희망은 과학자가 되어 고마운 조국을 과학과 기술로 받드는 것이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받은 곳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였다. 현실에 내려가보아야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수 있고 그에 맞게 과학연구사업도 진행할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그는 기업소의 전력계통과 그와 련관된 모든 공정들을 하나하나 직심스레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 어느 한 건조공정을 새롭게 개선해볼 결심을 가지고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다년간의 현장체험은 연구사업의 큰 밑천으로 되었다. 몇년은 실히 걸려야 한다면 건조공정을 지칠 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 연구로 그는 짧은 기간에 기업소실정에 맞게 확립하여 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정태호박사

그의 연구사업능력은 그후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 연구사로 일하게 되면서 보다 높이 발휘되었다.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연구사업에서 지켜온 준칙이고 지론이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는 늘 현장에 나가 살다싶이 하였고 공장, 기업소와 연구소를 수없이

이 오고가며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그중에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고압전동기들에 작용하는 응력감소대책을 세우기 위한 연구사업과 내화성제고를 위한 나노절연물연구를 위해 바친 헌신적인 노력도 있다.

사실 이 연구과제들은 이미 다른 연구사들이 해보려고 시도 하였지만 끝장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것은 이 연구를 완성하자면 당시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허다하였기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이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그때 하나도 아니고 단번에 두가지의 연구과제를 동시에 밀고나가자니 그에게 있어서 모자라는 것이 시간이였다. 밤잠을 줄이였고 하루계획을 치밀하게 조직하고 그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으로 시간을 얻어낸 그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연구와 실험을 거듭하였다. 진척도 있었지만 실패도 거듭되었

다. 어떤 때에는 마음이 약해질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는 자기의 꿈과 희망을 꽃피워준 고마운 조국을 위해 기어이 연구과제를 완성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다잡곤 하였다.

연구사들과 함께



때로는 연구소에서, 어떤 때에는 기업소의 실험실의자에 앉아 쪽잠을 자다가도 그는 다시 일어나 실험을 계속하였으며 끝내는 그렇게 해결하기 어렵다던 연구과제들을 련이어 성공시키었다.

그는 자기의 인생행로를 더듬어보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자기가 하나를 하면 둘셋을 안겨주는 것이 조국이라고 말하였다. 박사학위며 훈장들 그리고 훌륭한 새 집...

조국의 사랑과 은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기에 그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곤 한다. 《아무리 큰 공을 세운다고 한들 나라의 고마움을 다 갚을 수는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의 순간순간을 초불처럼 태우며 살아야 한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상식

아름다운 민속이
백두장립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밥이 주식이었던것만큼 밥상차림이 기본 상차림이었다.

밥상차림에는 독상, 겸상, 두리반차림이 있었다.

독상은 한사람이 식사할수 있도록 차린 음식상차림으로서 존대하는 뜻으로 가장이나 손님에게 차리었다.

독상을 차릴 때 밥그릇은 상을 받는 사람의 왼쪽에, 국그릇은 오른쪽에 그리고 간장, 초장, 고추장 등의 그릇들은 상 한가운데 놓고 그 주변에 여러가지 찬그릇들을 질서있게 놓았다.

겸상은 두 사람이상, 대체로 네 사람까지 함께 먹을수 있게 차린 음식상이다.

겸상차림에서 밥그릇과 국그릇, 숟가락과 저가락은 각기 앉은 사람의 앞줄에 차리고 양념담은 종지는 상가운데에, 김치와 찌개 등의 그릇은 양념그

릇 좌우에 놓고 그밖의 찬을 담은 접시들은 그 두리에 먹기 편리하게 차렸다.

두리반은 한상에 여러명이 함께 먹을수 있게 차린 상차림으로서 형태는 둥근형과 4각형이 있었다.

두리반에 음식을 차릴 때에는 밥그릇, 국그릇만은 각기 따로 담아놓고 찬류는 보시기와 접시 등에 담아 함께 나누어먹기도 하였으며 일부 농가들에서는 국그릇만 개별적으로 놓아주고 밥은 큰 그릇에 담아 상가운데에 올려놓고 각기 떠먹는 관습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찬을 담은 접시의 개수에 따라 3첩반상기, 5첩반상기, 7첩반상기, 9첩반상기라고 부른 반상기차림이 있었다.

* * *

전통음료 — 승냥

승냥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 마셔온 독특한 음료의 하나로서 밥을 지어내고 남은 가마치에 물을 두고 끓인것이다.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은 음식을 먹고난 다음 승냥으로 입가심하는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겨왔다.

또한 끼니때마다 밥을 거의다 먹고 몇순가락 정도 남았을 때 그것을 따끈한 승냥에 말아 마른 반찬이나 짬짬한 장절임, 젓갈 등을 받쳐 먹는것을 좋아하였다.

이밖에 가정주부들이 식사후 옷사람들에게 승냥을 드리는것을 하나의 식사법절로 지켜왔다.

시부모나 옷사람이 식사를 끝냈을 때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머느리가 승냥을 드리고 끝을 맺는 풍습이 있었다.

승냥마시는 풍습이 우리 민족의 생활속에서 오래동안 굳어져 내려오면서 그와 관련한 성구, 속담들도 많이 전해지고있는데 그가운데는 《급하기는 우물에 가 승냥 찾겠다》, 《보리밭에 가 승냥 찾겠다》, 《승냥에 물란 맛》 등이 있다.

최근에는 승냥의 영양학적가치로 하여 밥가마치로만이 아닌 흰쌀이나 보리, 밀 등을 가지고 우정 승냥을 만들어 차대신으로 리용하기도 한다.

* * *

정이 드는 고장

남포시 강서구역은 수도 평양에서 그리 멀지 않다.

강서구역이라고 하면 조국인민들뿐 아니라 해외동포들속에도 널리 알려진 고장이다.

한것은 고구려시기의 강서세무덤과 덕흥리벽화무덤, 세계적으로 이름난 강서약수, 우리 나라에서 첫 트랙토르의 발동소리가 울린 금성트랙토르공장,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 청산리가 바로 강서땅에 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는 어느것부터 소개할지 몰라 망설이게 되었다.

우리와 만난 구역의 일군인 리영범은 강서땅의 첫걸음은 아마 강서약수공장으로 향해야 할것 같다며 우리를 이끌었다.

그는 강서약수에 대해 아는것이 많았다. 우리 나라 력사문서인 《강서군지》에 의하면 강서에서 약수가 발견된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전이라는것을 비롯하여 그는 강서약수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오랜 력사를 가진 강서약수에는 광물질, 칼시움이온, 마그네시움이온, 나트륨이온을 비롯하여 인간의 생명에 리로운 여러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있고 각종 내장질병들과 신경계통질병 등 여러 질병치료에서 특효가 있는것으로 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장에 다달은 우리는 지배인 립선화녀성을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이전에는 그 존재마저도 잃을번 하였던 강서약수가 지금은 그 맛과 약효능, 량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강서편직공장



소문난 약수로, 약수공장으로 전변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공장의 생산현장에도 둘러보았다.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흐름식생산공정들과 끊임없이 줄지어 생산되는 각종 형태의 약수병들, 통합생산체계가 실현되어 약수용출구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자동화된 공장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런가하면 공장에서는 약수를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병치료에 필요한 조건들을 그뿐히 갖춘 약수목욕탕을 건설하여놓고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약수치료를 받고나오는 래성리에서 살고있는 김상철의 가정을 만날수 있었다. 그는 사람좋게 웃으며 《나는 원래 심한 소화장애로 하여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약수로 목욕과 치료를 정상적으로 하니 지금은 병증세가 완전히 없어졌다. 정말이지 우리 강서땅은 력사도 유구하고 산천도 아름답



공장에 꾸려진 약수목욕탕



다우며 물도 좋은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행복에 겨워 말하였다.

이런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친 모습을 우리는 강서땅 이르는 곳 어디서나 볼수 있었다.

지난해 80hp 《천리마-804》형트랙토르생산과제를 앞당겨수행하고 자기들이 생산한 트랙토르들이 협동벌들에서 은을 내고



금성트랙토르공장에서



강서경기장

있다고 말하는 금성트랙토르공장 기사장 황만일의 자랑넘친 목소리에서도, 생고치로 실을 뽑을수 있는 생산공정을 확립하여놓고 실생산량을 늘리고있다는 강서제사공장 종업원들의 기쁨넘친 얼굴에서도 우리는 자기 힘과 지혜로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려는 이 고장 사람들의 높뛰는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큰 규모의 체육경기도 원만히 할수 있게 건설된 강서경기장과 강서운동관에서 각종 체육문화오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량만과 희열에 넘친 강서인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정말이지 강서땅은 그 어디를 가보아도 정이 뚝뚝 드는 고장이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강서약수공장에서





중국 흑룡강성 호림시 조선족음식점 차초월언니 앞

외로움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보고싶은 언니, 안녕하십니까.

나는 요즘 매일같이 언니에 대한 꿈을 꾸곤 합니다.

아마도 지난해 추석에 조국에 있는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왔던 중국에서 살고있는 조카들을 만났던 그날부터 더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다나니 조국에서 큰 행사들이 진행될 때면 언니도 중국에서 울것만 같아 신문지면을 보고 또 분담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몹시도 보고싶어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아직 한번도 본적없는 언니를 머리속으로 그려보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5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 더욱 보고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언니도 이 동생의 소식이 무척 궁금할것입니다.

조국에 형제들이 없어 내가 외로울것이라고 생각할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 한번 외로움을 느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있습니다.

조국에서는 남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여기고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지내고있습니다.

내가 사는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만 놓고보아도 형제없이 사는 나를 위해 명절날이나 일요일이면 인민반장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음식까지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찾아와 윗놀이랑 하면서 하루를 같이 보내는가 하면 우리 딸 미영이가 결혼식을 할 때에는 자기 집안의 경사처럼 여기며 성의있게 준비한 기념품들도 안겨주었습니다. 솔직히 딸애의 레장감은 마을사람들이 거의 마련해주다싶이 하였습니다.

미영이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미역이며 닭알, 꿀 등을 남몰래 우리 집 토방에 놓고간 이웃들이었습니다.

언니, 덕과 정이 차넘치는 조국에서는 이것이 레사로운 일로, 평범한 일로 되고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화목한 대가정인 조국을 위해 나도 무엇인가 이바지하고싶어 마을꾸리기를 비롯한 여러 사업들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역에 경기장을 건설할 때에도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하였고 성의있는 물자들로 건설자들을 고무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또 그대로 강서구역 보림고급중학교에서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 열정을 다해 몸을 잡고고있습니다.

천리마타일공장에 다니는 아들 효남이는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공장일에 얼마나 열성인지 직장사람들이 혁신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크고작은 기쁨이 쌓이니 나는 늘 웃음속에 살고있습니다.



그렇수록 혈육인 언니, 오빠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싶은 마음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조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에서 아버지와 오빠, 언니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언니, 세월은 모든것에 변천을 가져다준다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강렬해지는것이 떨어져있는 혈육들에 대한 그리움인가 봅니다.

언니도 강서약수로 이름난 우리 고장에 한번 꼭 오십시오.

그럼 언니와 상봉할 그날을 기다리며 펜을 놓겠습니다.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 85인민반 차룡숙동생 올림

민족적권리와 민족성을 지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의 일군들과 동포들이 민족적권리와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일본 효고현동포들의 투쟁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효고현은 지금으로부터 71년전에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해보려던 일본반동들의 파썸적탄압을 분쇄해버리고 자주적인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켜 재일조선동포들이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력사적인 4.24교육투쟁을 파감히 벌리었던 발원지이다.

이곳 동포들은 지난해 9월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4.24의 자랑찬 교육전통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한 효고동포열성자들의 쫓기모임》을 가지고 민족교육발전을 위한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릴것을 선포하였으며 이 운동을 즐기치게 벌려왔다.

선대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키고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조선민족차별행위에 중지부를 찍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이런 의지안고 이곳 동포들은 혁신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효고현본부의 주최하에 조선학교 초, 중, 고급부 학생들이 출연한 예술공연 《미래》는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키려는 효고현동포사회의 높뛰는 숨결을 담은것으로 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었다. 학부모들은 우

리 학교를 더욱 굳건히 지켜갈 의지를 굳히였고 진학문제를 놓고 일시나마 망설이던 학생들은 또 그들대로 주저없이 조선학교로 갈 결심을 다지였다.

효고현동포들은 일본반동들의 차별행위의 부당성을 까밝히는 선전활동과 함께 총련의 민족교육에 대한 옳바른 이해를 가지고 조선학교지원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것을 요구하는 활동도 힘차게 벌리였다.

이러한 선전활동은 일본 각지에 있는 수많은 총련의 본부, 지부조직들은 물론 전동포사회적으로도 강력히 벌어졌다. 동포들은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일본사회에서 반공화국적대감정을 부추기고 총련의 민족교육을 가로막으며 저들의 목적을 실현해보려는 정치적탄압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터무니없는 구실로 조선학교를 차별하며 동포자녀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민족교육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와 함께 동포들은 일본반동들의 동화, 귀화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훌륭히 꽃피워나감으로써 자기들의 민족성을 고수해나가고 있다.

동포들이 사는 그 어느 곳이나 다 그러하지만 흑카이도에 는 민족예술을 사랑하고 즐기

는 동포들이 류달리 많다. 최근에만도 그들은 동포사회의 커다란 관심속에 흑카이도동포예술애호가들의 발표회를 성대하게 진행하였다.

발표회에는 민족악기2중주, 무용 등 다양한 종목들이 무대에 올라 동포들의 흥취를 돋구었다. 특히 조정원들이 출연한 가야금중주 《바다의 노래》와 예술소조원들의 민속무용은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사이다마지역동포문예협의회 《얼싸》성원들이 창조한 가극 또한 동포대중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었다. 가극은 남편을 잃고 어렵게 사는 속에서도 민족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기울이는 너주인공이 어린 외동딸을 통학시간이 무려 2시간이나 걸리는 조선학교에 보내며 참된 조선사람으로 키워가는 모습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걱정을 고조시키였다.

공연을 본 동포들은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공연》, 《민족교육의 력사가 한눈에 어려와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민족교육발전의 길에 새겨진 자기들의 발자취를 감회깊이 더듬어보았으며 앞으로도 애국애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빛내어나갈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본사기자 강경수

고국은 진짜 강국

나는 고국을 자주 찾곤 한다. 지구의 한끝 캐나다에서 고국으로 온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그 길이 멀게만 생각되지 않는다. 아마 그것은 내가 고국에 정이 들었기때문인것 같다.

여러차례의 고국방문과정에서 내가 자주 생각한것은 고국이야말로 강한 나라라는것이다. 나는 그것을 지난해 공화국창건 70돐경축행사에 참가하여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고국에서는 별로 한 일도 없는 나를 그렇게 큰 경축행사의 해외동포대표로 초청하여주었다. 열병식과 군중시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등 성황리에

진행된 모든 행사들을 목격하면서 고국을 세계의 무대에 우뚝 올려서게 한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를 나는 잘 알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고국인민은 수십년동안 적대세력들의 부당한 압력을 받으며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만 고국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한치의 탈선도 없이 곧바로 걸어왔다. 오늘은 강국건설이라는 웅대한 목표실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나는 이런 고국이야말로 진짜 강국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처럼 내가 조선민족의 한성원임을 가슴뿌듯이 느껴본적이 있는것 같지 않다.



나는 고국의 장한 모습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앞으로 조선민족으로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업에 적극 나서겠다. 캐나다 밴쿠버시 리옥숙

민족의 얼을 지키도록

리가이 띠찌옐나: 정말 꿈결에도 그러하던 고국이다. 언제부터 오자고 마음먹었겠지만 기회가 맞지 않아 오지 못하였다. 무슨 일을 해도 고국으로 향하는 마음은 어쩔수 없어 방문단으로 다녀오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고국에 대해 묻곤 하였다. 그럴 때면 그들은 고국에서 받은 감동이 너무 커 말을 다 못하겠다며 고국에 한번 다녀오라고 말하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아닌게 아니라 고국에 오길 잘했다.

고국인민들은 친절하고 거리들은 깨끗하였으며



건축물들도 훌륭하였다. 더우기 나를 기쁘게 한것은 우리 조선말로 모든 의사가 통한것이였다. 내가 사는 나라에서 들어보기 힘들던 모국어틀 고국에서 들으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왔다.

솔직히 나와 자식들은 조선말을 류창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 이번 기회에 나도 그렇고 자식들과 손자들이 조선글을 배우는데 좋은 고국의 책들을 많이 샀다. 조선글을 모르면 조선민족이라고 말할수 없다.

리 빨리나: 나도 이번에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진도 많이 찍고 책들도 샀다.

부모들이 태어난 고국에 대하여 잘 알고 민족의 얼을 지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나는 신문과 텔레비죤, 인터넷에 고국의 소식이 실리거나 방영될 때면 그것을 빠짐없이 보곤 한다. 그 과정을 통하여 나는 고국의 현실을 알게 되고 또 고국인민들의 숨결을 느끼곤 한다. 뿐만아니라 손자, 손녀들에게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에 대해서와 아름다운 고국에 대해 늘 이야기해주고있다.

나는 로씨야에 돌아가면 자식들이 자기 민족을 잊지 않고 고국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

로씨야 나호드까 리가이 띠찌옐나, 리 빨리나

《빛나는 조국》에서 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보다 (2)

온 무대가 통채로 살아움직이는 거대한 화폭은 이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극치이며 조선의 위대한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진모습이였다.

경기장바닥을 누비며 힘차게 휘날려가는 무수한 기폭의 퍼덕임속에서, 최첨단돌파전으로 더 높이고, 더 빨리 비약하는 공화국의 현실이 비끼 화폭들에서 나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만을 이룩해가는 공화국인민들의 끝없는 환희와 랑만을 느낄수 있었다.

출연자들이 박자, 룰동, 대형, 지어 호흡과 눈빛마저도 하나와 같이 맞추어 펼치는 매혹의 신비경, 5월1일경기장의 거대한 공간을 짝 채우며 하늘과 땅에서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특기장면들은 예술적기교이기 전에 마음과 마음, 심장과 심장이 하나로 합쳐져 창조된 영원불멸할 혼연일체의 화폭인것이다.

내열에 앉았던 재미동포도 걱정과 흥분에 휩싸여 《정말로 바늘구멍만 한 틈도 없는 완전무결한 작품이다. 잘 짜인 공연은 그대로 북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저런 훌륭한 공연을 세계의 그 어느 나라가 흉내낼수 있겠는가.》고 말하는 것이였다.

한번 보면 영원히 잊을수 없는 강렬한 충격을 안겨주는 《빛나는 조국》공연은 조선민족의 우수성의 상징, 시간의 흐름조차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신비의 무아경, 세계에 기록될 명작이며 조선의 진주보석이다.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황홀한 화폭은 펼칠수 있지만 그 화폭과 더불어 산악같은 힘을 새겨안게 하는 진리는 원한다고 하여 누구나 력사에 새길수 있는것이 아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야말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첨단과학기술력이 펼친 황홀한 장면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천만이 하나가 된 단결의 힘에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형상방법들을 안받침한것으로 하여 예술의 품미를 한껏 돋구고있는 대결작이다.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무수한 별들로 가득한 우주의 한복판에 새로운 《별의 세계》가 펼쳐졌을 때 나는 무한한 황홀감에 휩싸여 그 이름을 불러보았다.

《빛나는 조국》.

5월1일경기장의 하늘가에 새겨진 이 령롱한 글발은 백수십대의 무인기가 펼치는 장관이였다.

순간 나라잃은 식민지노예의 쓰라린 아픔을 안고 사랑하는 조국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부모님들의 모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림을 금할수 없었다.

지난날 약소국의 치욕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조국이 오늘은 저 하늘가의 새별처럼 밝은 빛을 뿌리고있는것

이 아닌가.

밤하늘가에 령롱하게 아로새긴 작품의 제명이 통채로 무대상공을 천천히 선회할 때 관람자들은 마치도 인류사상 처음으로 발견된 별자리를 본듯 흥분과 격정에 겨워 뜨겁게 환호했다.

나는 예술가가 아니며 과학자는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과학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가 실현된 공연이라는 느낌을 모든 이들에게 안겨주었다.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음악, 미술, 무용, 교예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형식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작품에서 매 장면들의 바둑형상에 참가하고있는 성원들만 하여도 평균 2 000~3 000명 지어 7 000명까지 된다고 한다.

수많은 장치물, 조명, 기술기재들을 담당할 보장성원들까지 포함하여 방대한 인원이 동원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15만석의 관람석을 가진 5월1일경기장을 무대로 하여 진행되지만 그 매 장면형상들을 보면 마치 하나의 실내극장에서 진행되는 공연과 같이 출연자들의 형상이 완벽하게 통일되어있었고 전반적인 안삼블이 훌륭하게 짜여져있었다.

더우기 전문예술인들만이 아니라 각이한 일터와 초소에서 모여온 평범한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대부분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은 다른 나라같으면 도저히 꿈꿀수도 흉내낼수도 없는것이다.

재중동포 리희진



박 월현

얼마전 우리는 금봉경제기술 협조사에서 사업하고있는 박혜영녀성을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는 로씨야에서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지켜가고있는 한 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박 월현.

로씨야 연해변강 조선인협회 회장인 그는 신문 《꾼구렌트》, 《우뜨로 로씨이》, 《우뜨로 위스토포까》 등 일련의 대중 보도수단들과 《월현》도서출판사의 창설자이다.

박혜영녀성이 박회장을 처음 만난것은 3년전 12월이었다.

당시 고국을 방문한 회장은 재로씨야동포들속에서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살려나가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선옷을 제작해줄것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되어 나이와 성별에 따르는 다양한 조선옷들이 제작되어 올라지보스토포크로 가게 되었다.

견본품들에 대한 동포들의 반향은 대단하였다. 동포들은 조선사람의 체질과 유순하면서도

동포들의 존경을 받는 회장

우아한것을 좋아하는 민족적정서가 그대로 조선옷에 비껴있다고 하면서 저저마다 만들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박회장은 비록 이역땅에서 살지만 민족의 피줄은 결코 감출수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여기에서 신심을 얻은 그는 민족이 창조한 문화전통을 잘 보여줄수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로 그 폭을 넓히기로 결심하였다.

하여 그는 민족옷은 물론이고 조선화, 도자기, 수예와 같은 미술작품, 전통적인 고려약품, 건강식품들과 같은 조선의 제품들을 봉사하는 봉사기지들을 올라지보스토포크와 우주리스크에 세울것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고국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이 날로 우심해졌기때문이었다.

하지만 일시적인 난관에 쉽게 물러설 그가 아니었다.

그렇수록 그는 자주 고국을

찾았다. 주체103(2014)년 8월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 자동차행진》에 참가하여 우수한 문화전통이 훌륭히 꽃피어나고있는 고국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조국통일을 바라는 고국인민들의 열망도 느낄수 있었다.

고국에서 체험한 소중한 그 모든것이 그에게 신심과 용기를 배가해주었다.

그는 현실적조건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텔레비전방송과 인터넷을 통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제품들에 대한 소개선전을 광범하게 진행해나갔다.

얼마 안되어 시청자와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로씨야사람들속에서도 인기가 높아졌다.

지금 그는 민족의 력사와 전통에 대해 알고싶어하는 동포들의 심리에 맞게 제품광고와 판매를 더욱 다양하고 특색있게 해나가고있다.

기업가이기도 한 그는 연해변

주문받은 조선옷에 대해 토론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사 (1)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침략자들과도 용감히 맞서 나라의 존엄을 건결히 수호하여왔다.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의 첫 페이지에는 고조선시기 인민들의 투쟁자취도 새겨져있다. 그 대표적인것이 B.C. 109년부터 B.C. 108년에 진행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이었다. 당시 고조선인민들은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밀려드는 침략군의 대규모적인 공격을 성과적으로 물리쳤다.

이 전쟁은 나라를 지키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반침략전쟁이었다.

당시 침략자들은 전쟁도발의 구실을 찾기 위해 사신을 보내어 외교적방법으로 고조선을 굴복시키고 회유하였으나 고조선의 우거왕은 이를 단호히 거절해버렸다. 그러자 사신은 돌아가면서 국경지역에서 자기를 배대주려고 나왔던 고조선의 비왕을 죽이고 도망쳤다. 이것은 고조선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었다.

고조선인민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 사신을 죽여버리었다.

오래동안 전쟁준비를 다그쳐온 침략자들은 고조선의 정당한 사신사건을 구실로 드디어 B.C. 109년 바다와 육지로 고조선지역에 쳐들어왔다.

침략군은 두 방향으로 침공한 부대들을 합쳐 단숨에 고조선의 부수도 왕검성을 강점하고 전쟁을 끝내려고 획책하였다.

이에 대처할 고조선통수부의 방어전략은 료동계선의 방비를 강화하여 육로로 침입하는 적을 패수계선에서 격파하며 해안방비와 수군을 강화하여 바다로부터 기여드는 적을 쳐부시는것이였다.

적군의 좌장군은 먼저 료동의 군사를 내몰아 고조선의 패수방어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고조선군은 첫 전투에서부터 적에게 강한 타

격을 주어 격파하였다. 고조선군의 타격에 적군은 산산이 흩어지고말았다.

한편 5만의 적의 수군은 렬구로 향하였으며 그중 7 000명의 군사를 뽑아 왕검성을 공격하였으나 강력한 반격을 받아 비참한 패배를 당하였다.

패전을 거듭한 침략자들은 담판사신을 파견하는 한편 군사적위협으로 고조선을 굴복시키려고 책동하였다. 고조선군은 적의 기도를 간파하고 화의에 응하는척 하면서 5 000필의 말과 1만여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군사적위력을 시위하면서 담판장으로 나가 적의 회유기도를 파탄시키였다. 이렇게 되자 침략자들은 회유기도의 파탄책임으로 고조선의 담판사신을 죽이고 다시 두 전선에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적들은 왕검성을 포위하고 집요하게 공격하였으나 그때마다 성방위자들의 완강한 방어전으로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뜻밖에도 왕검성안의 통치층속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지만 고조선의 군사들과 인민들은 성기장군의 지휘밑에 항전을 계속하였다.

침략자들의 발길이 미치는 다른 지방, 다른 성들에서도 고조선군과 인민들의 항전은 줄기차게 벌어졌다. 고조선의 부수도 왕검성점령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모든 력량을 집중하였으나 성을 함락시킬수 없었던 적들은 항전의 지휘자 성기를 살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었다. 적의 간계와 반역자들의 책동으로 성기장군이 살해되어 왕검성방위자들의 항전은 더는 계속될수 없게 되었다.

반침략투쟁은 결국 실패하였으나 적측의 왕은 전쟁에서 패한것은 자기들이라고 하면서 그 책임으로 전후 수많은 장수들을 처형하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정철

강지역의 동포들과 장애인, 로병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어린이들의 체육문화발전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고있다.

그는 가족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그는

《조선사람이라면 응당 민족이 창조한 문화와 전통을 잊지 말아야 하며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업은 민족의 얼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고국에서는 재로동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박 월현 회회장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훈장을 비롯하여 훈장과 메달들을 수여하였다.

본사기자 연옥

평안남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2)

- 훈련정 -

훈련정은 이름 그대로 군인들이 무술을 연마하거나 사열할 때 쓰이던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루정이다.

평안남도 평원군 평원읍 미두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지금의 훈련정은 1630년에 세운것이다.

미두산에는 산성과 봉수대가 있어 이 일대는 예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지로 되었었다.

훈련정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규모가 큰 루정으로서 앞쪽은 겹처마이고 뒤쪽은 홑처마인 합각집이다. 모를

죽인 28개의 네모기둥이 두 줄로 주련이 서있는데 서쪽과 남쪽의 바깥 한줄은 밑에 높이 1m정도의 돌기둥을 받치고 그우에 나무기둥을 세웠다. 그것은 군사관계건물의 사명에 맞게 위용을 돋구려는 목적과 함께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비바람으로부터 기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것이다. 루정은 단익공의 소박한 두공을 엮었으며 건물전반에는 희귀한 반금단청을 입혔다. 이 루정에서는 마루보루우에 엮은 화반대공

의 별지화가 이채를 띤다.

가운데 화반대공에는 라치와 청룡, 황룡이 그려졌으며 그 량쪽 화반대공에는 달리는 말을 타고 칼을 뽑아든 무사와 백마우에서 세가닥창을 추켜든 무사가 각각 그려져있다. 이 화반대공의 그림들도 역시 건물의 성격에 맞는 전투적이며 용맹을 상징하는것들이다.

훈련정은 건축술과 함께 당시의 군사제도를 연구하는데도 가치있는 자료를 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본사기자



야 화

다정한 두 이웃집



옛날 어느 동네에 두 이웃집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서있었다.

한집은 얹전이라는 처녀애가 사는 집이었는데 마당가에 큰 배나무가 있다고 해서 배나무집이라고 불렸다.

또 한집은 칠성이라는 총각애가 사는 집이었는데 황소를 기른다고 해서 누렁둥이네 집이라고 불렸다.

두 집 식구들은 먼 증조할아버지때부터 말다툼 한번 하지 않고 서로서로 도와주며 화목하게 지냈다.

한집안식구끼리도 오래 사노라면 한두번쯤은 티각태각하기마련인데 어떻게 친척도 아닌 두 이웃집이 그렇게도 의좋게 살아갈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선들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가을날이었다.

동네아이들과 풀메뚜기를 잡으며 재미나게 놀다가 저녁녘에야 집으로 돌아와 사립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칠성이는 울타리옆에 배 두알이 떨어져있는것을 보았다. 그는 얼른 달려가서 량손에 한알씩 집어들었다. 시누렇게 익은 먹음직스럽게 생긴 배였다.

향기로운 냄새가 물씬물씬 풍기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스프르 돌았다.

칠성이는 배고픈김에 이것저것 생각할새없이 한입 푹 떼어먹었다.

바로 그때 《이랴, 찢찢.》 하며 버가을하러 갔던 아버지가 황소를 앞세우고 돌아왔다.

아버지는 토방에 앉아서 배를 먹고있는 아들을 보고 물어보았다.

《칠성아, 너 그 배 어디서 냈느냐?》

《우리 집 마당에서 주었어요.》

《뭐? 우리 집 마당에서 줬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정말이에요, 아버지. 저 울타리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칠성이가 가리키는 곳을 눈여겨보았다.

울타리너머로 이웃집 배나무가지 하나가 쪽 뻗어 들어와있었다.

틀림없이 그 가지에서 떨어진 배였다.

아버지는 대뜸 성이 나서 커다란 손으로 칠성이의 엉덩이를 철썩 때리며 꾸짖었다.

《너 언제야 철이 들겠느냐? 그래, 그 배가 이웃집 배나무에서 떨어진줄을 몰랐단 말이나. 아무리 우리 집 마당에 떨어져있다 해도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못쓴다. 당장 가서 얹전이 아버지보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칠성이는 아버지의 호령을 들었는지먹었는지 영영 울기만 하였다.

《사내너석이 울긴, 어서 썩 갔다오지 못 할가.》

아버지는 또다시 큰소리로 꾸짖었다. 그러자 칠성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사립문을 향해 걸어갔다.

바로 그때 울타리곁에 서서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다 듣고있던 얹전이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나오더니 배나무를 찍기 시작했다.

칠성이 아버지는 급히 달려가 얹전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여보게, 이웃집동갑이. 그 귀한 배나무는 왜 갑자기 찍나?》

《배나무가 아무리 귀하다 해도 이웃집 외아들 보다가 더 귀중하겠나. 이 배나무때문에 칠성이가 엉덩짝을 얻어맞은게 분해서 그러네. 그러니 아예 없애치우면 될게 아닌가.》

《허허, 참 사람두...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찍지 말게.》

《아무렴, 그러면 그렇겠지.》

얹전이 아버지는 배나무에 올라가 시누렇게 익은 배를 한알도 남기지 않고 다 떼었다. 그리고는 똑같이 나누어 한몫을 울타리너머로 넘겨보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칠성이는 자기 아버지가 얹전이 아버지보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빌었는지 그 리유는 딱히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칠성이는 제앞에 저절로 굴러온 물건이 아무리 자기에게 필요한것이라고 해도 남의 물건일 때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것만은 똑똑히 알았다.

두 이웃집사이가 이리했으니 다정할수밖에 없었던것이였다.

* * *

일본에 간 조선의 마상재선수들

1635년 어느날이었다. 에도(당시 일본의 수도)의 거리로 두명의 림름한 조선사람이 소풍을 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그들이 바로 일본관백(국왕)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에도에 온 조선의 마상재선수들인 장효인과 김정이었다.

그때로 말하면 7년간의 임진조국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되는 시기라 조선봉건정부와 일본사이에 정상적인 국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때여서 일본관백은 1634년 조선에 사람을 파견하여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잘못을 다시 사죄하면서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맺을것을 청원하는 한편 조선의 유명한 마상재를 한번 보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사신일행과 함께 두명의 마상재선수들이 일본에 갔던것이다.

당시 조선의 마상재수준은 대단하였다. 마상재에는 말 한 마리를 타고 하는 필마방법과 말 두마리를 타고 하는 쌍마방법이 있었는데 각각 6가지 수법으로서 그 기술이 실로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일본의 관백은 조선의 사절단을 위하여 도꾸가와막부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조선의 이름난 마상재를 언제쯤 구경할수 있는가고 물었다.

사신은 《그야 어려울게 있는가.》고 하면서 래일이라도 장소가 준비되면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이튿날 장효인과 김정이 예

정된 장소인 넓은 공지에 이르기 그 주변은 구경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러한 속에서 효인이 먼저 단독출연을 하였다. 그는 날랜 몸동작으로 말안장우에서의 곧추서서 달리기, 말등넘나들기, 말우에서 거꾸로서기, 가로놓기, 몸숨기기, 뒤로놓기 등 어렵고 힘든 6가지 동작을 재치있게 수행하였다.

《거참, 하늘귀신도 울고갈 신기한 재주로다. 정말 멋있어!》

관백도 연신 감탄하며 옆에 앉은 관리들에게 엄지손가락을 흔들어들었다.

런이어 김정이 출연하는 쌍마재주가 진행되었다. 쌍마재주는 효인이가 한것과 같았지만 달리는 두필의 말우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몸을 숨기기도 하는 동작들은 확실히 필마단기로 하는것보다 폭이 넓고 시원하며 장쾌하였다.

김정의 마상재가 끝났을 때 구경꾼들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소리가 터졌다.

《정말 멋진 구경을 했소. 대감, 저 마상재를 우리 일본사람들에게 좀 배워주시구려.》

관백은 별걸게 상기된 얼굴을 사신쪽에 돌리며 체면을 무릅쓰고 말했다.

《글쎄요, 현대 마상재란 원래 위험을 동반하는것이어서 희망자가 있을런지? ...》

《아, 그건 넘려마오, 저기 저 사람이 말타기를 그중 좋아하고 또 제주도 어지간히 있는 사람이요.》

관백은 자기의 한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정 그렇다면 배워드리도록 하지요.》

이날 마상재가 일본사람들에게 준 감흥은 말로 다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이튿날부터 김정과 장효인은 여러명의 일본인들에게 마상재기교를 배워주었다.

일본관백은 자기들의 눈을 띄워준 그들에게 자기 명의로 후한 선물을 듬뿍 안겨주면서 앞으로 두 나라 관계회복을 정상화하는데 더욱 기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후에도 조선봉건왕조에서는 일본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마상재에 능한 사람들을 일본에 보내어 마상재기교와 함께 조선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의 각 토 특산물들 (5)

평양의 특산 - 룡두지짐

룡두지짐은 김치, 불고기와 함께 우리 나라 3대 기호음식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단백질, 당질, 탄수화물, 비타민이 풍부히 들어있으며 독풀이, 리노작용이 강한 룡두를 재배하여 음식재료로, 약재료로 리용하여왔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편찬된 《음식지미방》, 《규합총서》 등에 꿀에 반죽한 꿀이나 밤소를 넣어 기름에 지지는 룡두지짐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한 내용이 소개되어있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룡두지짐을 만들어먹어온 력사가 오래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룡두지짐은 우리 나라의 어느 지방에서나 즐겨 만들어먹는 음식이였지만 그중에서도 평양의 룡두지짐을 제일로 일러주고있다.

평양지방에서 내려오는 룡두지짐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룡두를 타개여 물에 충분히 불구었다가 껍질을 걷어내고 물망질을 한다. 배추김치는 잘게 썰어 찬물에 우려낸 다음 물기를 짜우고 돼지고기는 비계가 붙은것으로 골라 삶은 다음 얇게 썬다. 물망질한 룡두에 배추김치, 채썬 파, 다진 마늘, 후추가루, 소금을 두고 골고루 섞는다. 그런 다음 지짐판에 기름을 두르고 지짐감을 한 국자 떠놓고 비계가 붙은 돼지고기편을 중심위치에 한점 놓은 다음 노릇노릇하게 지진다.

평양지방의 룡두지짐은 배추김치나 돼지고기를



넣고 지진것도 특색있지만 크기나 두께 역시 다른 지방의것보다 훨씬 크고 두텁다.

예로부터 평양지방에서는 룡두지짐을 온반의 꾸미로 올려놓기도 하고 굽높은 접시에 담아 잔치상이나 제상에 차려놓거나 설명절음식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오늘 평양의 룡두지짐은 자기의 본태를 가진 음식으로 널리 보급되고있으며 룡두지짐만드는 풍습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계승발전되고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박승길

력사인물

국문시가 발전에 기여한 정철

벼슬까지 하였다.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이 일어나자 정철은 호남, 호서의 체찰사로 왜적과의 싸움에도 참가하였다.

정철은 복잡하고 곡절많은 생활과정에 당대사회의 착잡한 현실과 인정세태를 어느 정도 리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국문시가창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

그는 1580년에 강원도관찰사

로 임명되어 원주에 가있을 때 금강산을 돌아보고 표현력이 풍부한 우리 글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그 아름답고 기묘한 자연 풍치를 생동하게 노래한 기행가사 《관동별곡》을 창작하였으며 그 이후시기에는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을 비롯한 4편의 가사작품과 80여수의 시조 등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리고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창작한 일련의 작품들에서는 위기에 처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울데 대한 애국의 지향을 절절히 노래하였다.

이렇듯 정철은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잘 살려 시적형상수준이 높은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16세기 우리 나라 국문시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 *

로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5)

- 구월산 -

구월산은 황해남도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나라 6대명산중의 하나이다.

구월산이라는 이름은 단풍든 9월의 풍경이 하도 아름답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특이한 산악미, 계곡미를 자랑하는 구월산은 주봉인 사황봉을 비롯하여 오봉, 주거봉, 삼봉, 아사봉 등 기묘하게 생긴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수많이 있는것으로 하여 유명하다.

구월산의 산성골, 오봉골, 운

계골, 화장골, 원명골을 비롯한 깊은 골짜기들에는 구슬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려 이채롭고 령롱한 칠색무지개를 펼쳐보이는 룡연폭포, 삼형제폭포를 비롯한 폭포와 담소들도 적지 않다.

구월산의 골짜기들로는 한이천, 한일천, 남대천, 구월천, 산촌천 등의 하천들이 흐르기 시작한다.

구월산의 북쪽비탈면으로 흘러내리는 한이천상류의 삼수동에는 부연, 마연, 요연 등이 있

고 산허리에는 7년동안 왕가물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이름난 석담이 있으며 서쪽비탈면에는 마당소, 가마소와 같은 소들이 있다.

산중턱에는 교요연이라는 깊은 늪이 있다.

황해남도 서부지대에서 대표적인 산림지대인 구월산에는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단풍나무를 비롯한 수십종의 나무들이 무성하다.

구월산기슭에서는 갖가지 꽃



구월산의 서리꽃

들이 필뿐아니라 가을철에 밤, 대추, 감 등의 과일들이 무르익는다.

식물자원이 풍부한 구월산은

자연공원으로 되어있다.

지금 여기에서는 1 291종의 식물들이 자라고있다.

구월산에는 산삼, 단너삼, 만삼, 당귀, 오미자, 천남성, 족두리풀 등 약초들이 많으며 노루, 샓, 꿩, 찌꼬리, 두견새, 부엉이 등 많은 동물들이 서식하고있다.

구월산의 경치는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띤다.

이밖에도 구월산에는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태어났다는 단군굴과 단군이 무술을 닦고 공부를 하였다는 단군대도 있으며 단군의 제사를 지내던

삼성사와 단군사를 비롯하여 력사가 오랜 패엽사, 월정사 등 여러채의 력사유물들이 있다.

또한 구월산에는 지난날 황해도 5대산성의 하나였던 구월산성의 옛터와 고려시기 푸른자기를 구워내던 자리인 가마터가 있다.

오늘날 이름난 탐승지의 하나로,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꾸려진 구월산으로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수많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구월산의 구름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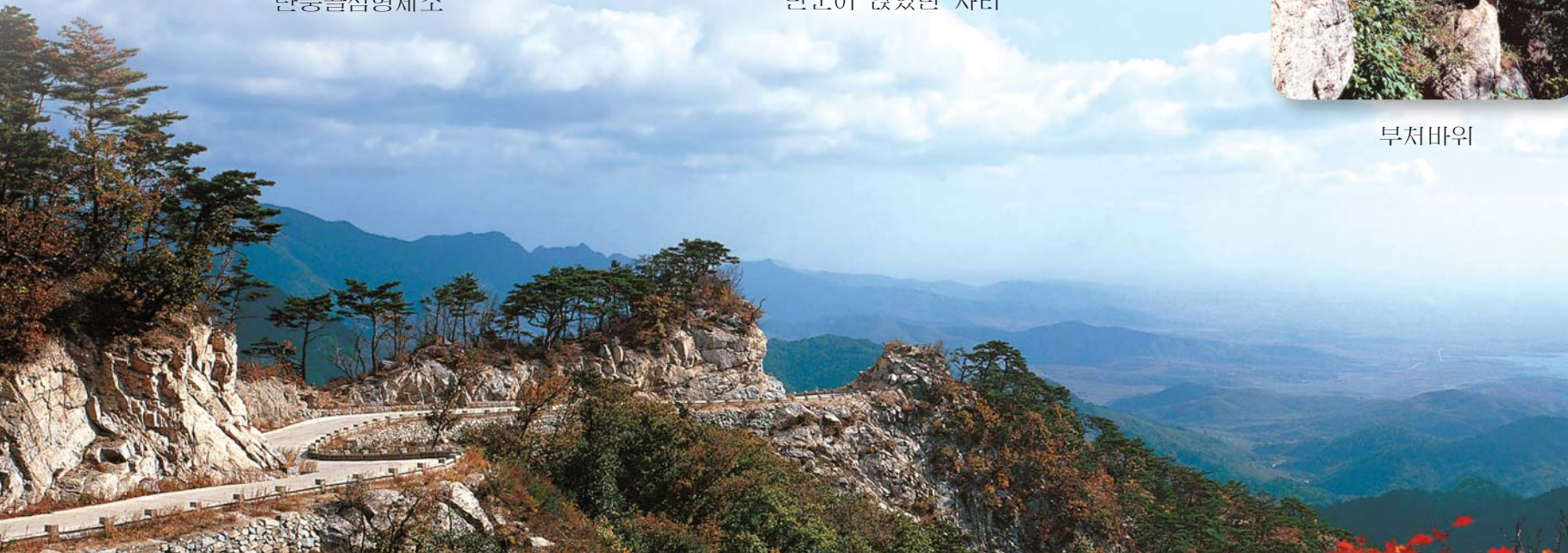
단풍골삼형제소



단군이 앉았던 자리



부처바위



건강과 장식에 좋은 돛자리

동포여러분,
 오늘 조국인민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전통 가운데는 돛자리를 리용하여온 생활풍속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돛자리는 왕골이나 골풀 같은것의 줄기를 잘게 쪼개서 짠 밭이 가는 자리로서 초물로 만든 바닥 깔개라는 뜻입니다. 돛자리를 만드는 재료로는 왕골이나 골풀외에 벼짚, 조짚, 밀짚을 비롯한 곡초들도 씁니다. 그 가운데서 왕골로 만든 돛자리가 가장 좋은것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자기가 쓰고사는 살림방을 깨끗하고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돛자리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하여 그에 따르는 성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돛자리는 새것일수록 보기도 그래 쓰기도 좋다는 뜻으로 《돛자리는 갈아맬수록 좋다.》고 하기도 하고 《돛자리 말듯하다.》라는 말과 같이 돛자리를 돌돌 말아나가듯이 무슨 일을 시원스럽게 해제기는 모양을 두고도 그 실례를 찾아 볼수 있을것입니다.

성구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돛자리가 인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옛 자료에 의하면 방바닥에 돛자리를 까는 풍속은 방을 덥히는데 온돌을 리용한 우리 인민의 생활과 관련되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온돌은 고조선(B.C. 30세기 초-B.C. 108년)시기에 발생하여 난방수단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민족은 신을 벗고 온돌방에 앉아서 생활하는것이 고유한 풍속으로 되었습니다.

당시 온돌을 한 방바닥에 깔이나 피나무껍질을 벗겨만든 노전을 깔았는데 이것으로부터 돛자리 공예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잔치가 있을 때나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에 돛자리를 펴놓는것이 하나의례절로 되어있었습니다.



특히 평안도와 황해도지방에서 만든 돛자리가 유명하였는데 평안도일대에서는 녀성들이 시집을 갈 때 지참품으로 돛자리를 가지고가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국의 여러 초물생산협동조합들에서 생산된 돛자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 신의주초물생산협동조합 관리위원장 차화숙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돛자리는 천연제품의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돛자리가 자기의 본색을 잃지 않고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해외동포들 지어는 외국인들속에서까지 좋은 평을 받고있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돛자리는 정전기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며 공기중의 습기와 먼지를 쉽게 빨아들이기때문에 건강에 아주 리로운 제품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살림방에 돛자리를 펴면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중요요구

지금 우리 겨레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조선반도의 평화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안아올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70여년의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로 북남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해에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과 과감한 실천적조치에 의하여 북남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을 통하여 4.27선언

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남사이에는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과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나갈 때 북남관계개선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는 결코 그 어떤 외부세력에게 리익을 가져다주기 위한것도 아니며 더우기 그 어느 일방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겨레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쳐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밝은 려명을 안아오기 위한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유구한 세월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하나의 문화와 려사를 창조해온 단일민족으로서의 공통성과 날로 강렬해지는 통일지향에 기초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나갈 때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현실로 펼쳐지게 된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것은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제이다.

북남협력과 교류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여러차례의 좋은 합의가 이룩되고 그 리행을 위한 길에서 일련의 협력과 교류도 있었지만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별로 빛을 보지 못하였다.

지난해 북남관계에서는 외세의 제재압박책동속에서도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이 진행되었다. 하여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세계와 려사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북남사이에 협력과 교류의 길에서 이룩된 성과는 이제 첫 걸음을 떼는데 불과하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는 마땅히 나

방의 열기가 잘 통하게 되고 여름에는 방바닥의 시원한 맛을 더해줄뿐만아니라 형태와 문양, 색깔이 독특하여 방안의 고전미를 살리는 측면에서 방안장식으로도 널리 리용되고있습니다.

돛자리는 용도에 따라 크기가 각이한데 어떤것은 한 방을 다 차지하리만큼 크게 만든것도 있습니다.

돛자리를 만들 때 룡, 사슴, 학, 새, 꽃, 구름, 글자 등을 기하학적무늬들과 결합시켜 다양하게 엮기도 합니다. 이것은 돛자리의 공예적특성이 더욱 살아나게 하고있습니다.》

차화숙관리위원장의 이야기는 나라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할뿐만아니라 그것을 적극 빛내여온 우리 민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감정정서와 알뜰하고 간진 생활풍습, 재능과 문명을 보여주고있는 돛자리에 대해 더 잘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동포여러분, 조선특산물의 하나이며 건강과 장식에 좋은 돛자리를 널리 리용해주십시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과거죄악을 대하는 판이한 모습

라의 분렬로 하여 빚어지고 있는 겨레의 고통을 가셔주고 민족의 복리증진과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고통을 뼈아프게 당하고있는 우리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보게 하는데서 참으로 의의있는 조치로 된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뿐만아니라 조선반도는 가장 평화롭고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변모되게 될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조선민족의 한성원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대업에 한몸 다 바쳐야 할 때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용기백배하여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어야 할것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도이칠란드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전야에 나치스도이칠란드정권 하에서 박해를 당하다가 영국으로 피신하였던 유대인생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당시 약 1만명의 유대인어린이들이 나치스정권의 탄압을 피해 영국으로 넘어갔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도이칠란드는 불미스러운 과거를 깨끗이 털어버리려는 성근한 자세를 다시금 보여 주었다.

20세기 전반기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인류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쭉운것으로 하여 세계의 규탄을 받은 도이

칠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과거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가셔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시기 나치스정권하에서 강제로동에 종사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지불을 전부 끝낸데도 불구하고 도이칠란드는 나치스에 의한 전범죄를 덮어두지 않고 외부에 계속 공개하고있으며 전시범죄시효자체를 폐지해버리고 제2차 세계대전시기 극악한 살인만행들을 조직, 지휘, 집행한 전범자들을 적발하여 응당한 징벌을 가하고있다. 도이칠란드의 문스터지구재판소가 1942년부터 1944년까지 나치스도이칠란드가 뿔스까의 어느 한 지역에 설치한 집단학

살수용소에서 복무하면서 수백차례의 살인사건에 가담한 이전 에스에쓰부대 성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것을 통해서도 과거를 대하는 도이칠란드의 립장과 태도를 잘 알수 있다.

도이칠란드는 그러한 조치들이 나치스가 저지른 반인륜범죄가 절대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하고있다.

과거범죄와 결별하려는 도이칠란드의 진지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도이칠란드와는 달리 일본은 아주 저속하고 비렬하게 놀아대고있다.

일본은 지난 세기 전반기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관권과 군권을 총 발동하여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관과 공사장들에 내몰았으며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또한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전략시켰다.

하기에 1999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 《무력분쟁시에서의 조직적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류사관행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구일본국에 의하여 산생된 일본군성노예문제, 강제로동문제와 함께 《군인》, 《군속》문제를 전쟁범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사실이 이리할진대 일본집권층은 과거에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정당화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해마다 도조 히데기를 비롯한 특급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되어있는 야스쿠니진자에 대한 집단참배놀음을 벌리고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판결은 전승국들이 내린 결정으로서 국내법의 견지에서는 범인이라고 말할수 없다.》는 강도적론리들을 계속 내대고있다.

한편 《독도령유권》문제를 비롯한 령토강탈야망, 재침을

위한 헌법개약과 군사비증강, 군사장비현대화 등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도이칠란드와 일본은 같은 전범국이지만 너무도 상반되는 모습이다.

하기에 국제사회는 이러한 모습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도이칠란드에게 어째서 전후로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역사적오점을 계속 외부에 공개하고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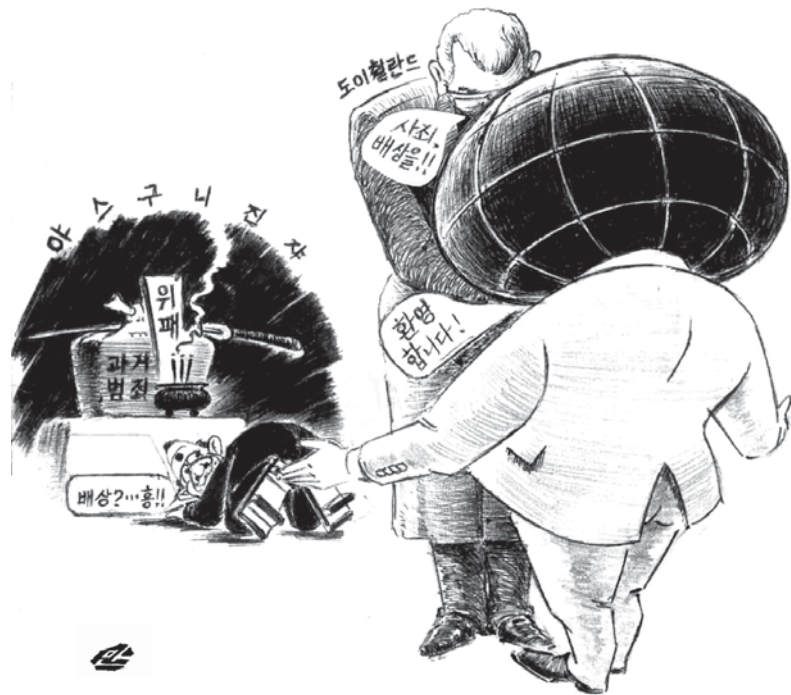
이에 대해 도이칠란드의 한 인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기때문이다. 도이칠란드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성해야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고 그러한 학살만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수 있다.》

일본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보아야 한다. 과거죄악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반성, 배상이 없이는 세계의 지탄을 면할수 없고 언제 가도 머리를 들고 살수 없다.

과거청산은 일본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것이다.

본사기자 엄향심



유모아

그 돈으로 하늘소를 산다면...

한 농군이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하였다.
 선생: 그 애를 받을수는 있지만 학비를 2백원 내야 합니다.

농군: 2백원?! 그렇게 많아요? 그 돈이면 하늘소 한마리를 사겠수다.

선생: 만약 당신이 정말 2백원으로 하늘소를 사고 그 애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당신네 집에는 두마리의 우둔한 하늘소가 있게 될거요!

* * *



적폐청산, 민심의 반영

남조선에서 보수패당의 집권시기에 감행된 온갖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광범하게 벌어지고있다.

특히 박근혜집권시기의 사법롱단범죄를 폭로단죄하는 움직임이 보다 강화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대법원 원장노릇을 한 량승태의 죄행들이 공개되었다. 량승태는 박근혜역도의 들러리가 되어 친일매국행위를 일삼은것은 물론 사법권을 휘둘러 진보민주세력을 가차없이 탄압하고 근로대중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데서 악명을 떨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개혁세력들은 물론 남조선 각계층은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구속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각종 집회와 시위를 련이어 벌리였다. 진보련대와 민주로총, 《전국공무원로조》 등 56개 단체의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리석기석방대회가 열리였다. 참가자들은 《사법롱단 최대피해자 리석기 석방하라!》, 《량승태를 구속하라!》고 웨치면서 항의행동을 벌리였다. 이것은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청와대와 대법원패거리들이 공모결탁하여 《리석기내란 음모사건》을 꾸며내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

해산놀음을 벌린 사실이 폭로되면서 그의 석방문제가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한 속에 《량승태 사법롱단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량승태가 법관의 탈을 쓰고 보수《정권》에 복무하면서 사법권을 휘둘러 수많은 민중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롱단은 과거 《정권》의 대표적적폐로서 그 청산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며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를 비롯한 사법롱단사건주범들을 즉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에서 적폐청산투쟁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가운데 광주대학살만행을 감행한 전두환역도에 대한 법적처벌을 요구하는 기운도 높아가고있다.

광주인민봉기관련단체 회원들은 집회를 열고 역도가 광주대학살만행의 진상을 밝히고 력사와 광주시민앞에 사죄할것을 요구하였다. 광주의 한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전두환역도를 단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한 단체는 전두환이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역도를 하루빨리 법정에 세우고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죄악만이 아니라 수많은 청장년들을 감옥에 가두고 파썬독재통치를 일삼은 죄행에 대해서도 력사적심판을 받게 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유신》독재통치시기 감행된 박정희역도의 반인민적죄행을 폭로하는 자료가 공개된것을 비롯하여 재벌과 정보원, 검찰, 경찰 등 공안통치기구의 개혁, 선거제도의 개혁, 북남관계, 실업문제해결, 철거민들과 장애인들의 생존권보장 등 적폐청산투쟁은 광범한 범위로 확대되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벌리고있는 적폐청산투쟁은 보수패당이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아 저지른 온갖 불법무법의 죄악을 청산하고 민주화된 새세상을 세울것을 요구하는 민심의 반영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반민주주의적이며 파썬적인 모든 적폐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총결기해나서고있다.

본사기자 변진혁

《은방울》손풍금과 바얀



평양시 만경대구역 당상2동에 위치한 평양악기무역회사에서 《은방울》손풍금과 바얀을 생산하고있다.

여러가지 종류의 손풍금과 바얀을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그뿐이 갖추어진 회사에서는 현대적인 측정설비들과 섬세하고도 정밀한 조립과정을 통하여 질 좋은 손풍금과 바얀들을 생산하고있다.

《은방울》손풍금과 바얀은 맑고 풍부한 음색과 높은 품질로 하여 악기전문가들과 연주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으며 국내는 물론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회사에서는 주체91(2002)년부터 중국, 로씨야, 이탈리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악기제작분야에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진행하고있다.





봄의 운치 본사기자 리 남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아 모란봉의 곳곳에 녹음이 우거지는데 맑은 물에 손을 잠그고 자기를 비쳐보는 소녀의 모습 봄의 운치를 더해주는가싶다.

